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문장 성분과 구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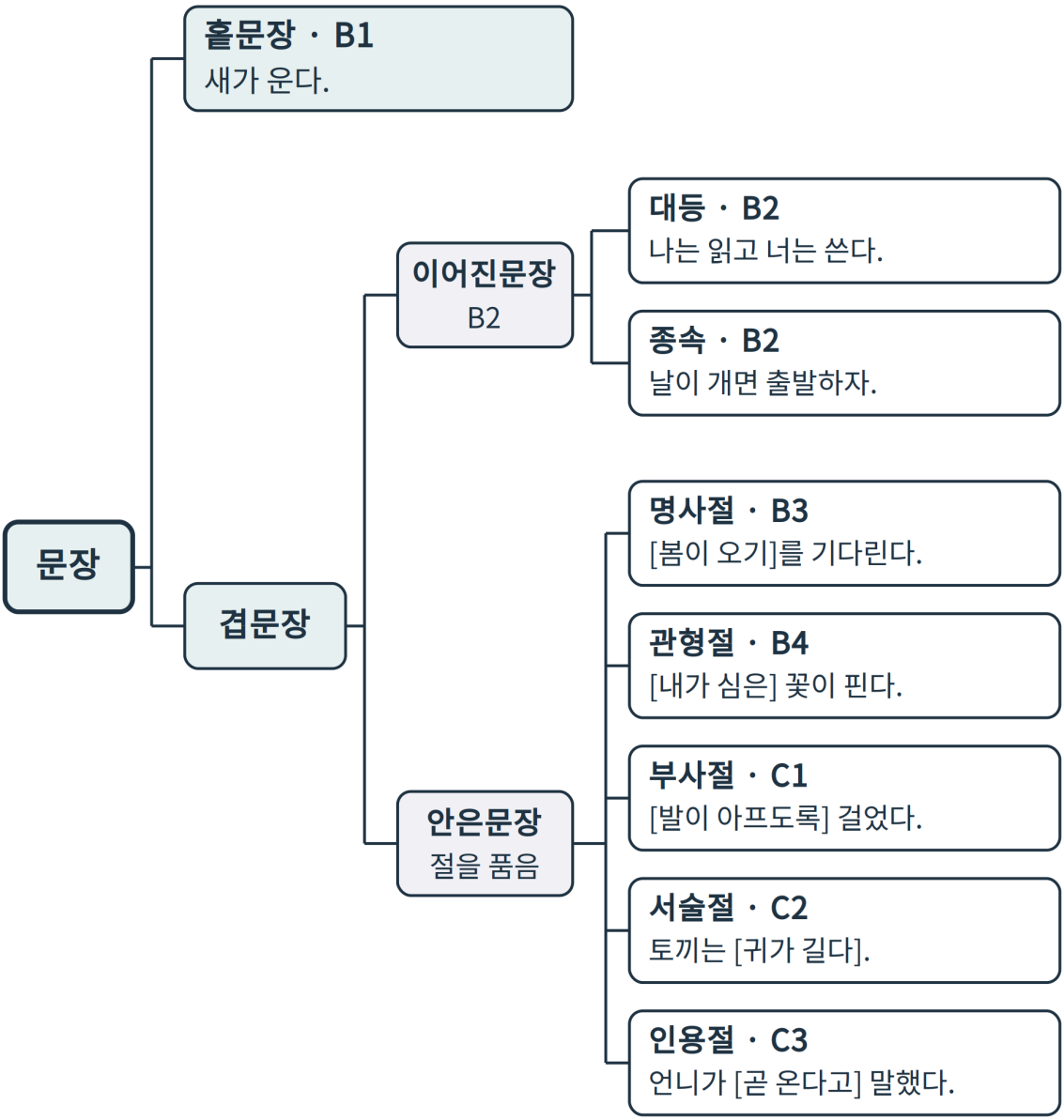
구·절·문장 · 문장 성분 · 홑문장과 겹문장 ·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 정확한 문장

80	40	40	16
이해·적용 문항	선택형	서답형	개념 묶음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G-00 문장 짜임 나무 지도



가지 선은 문장의 갈래를 나눈다.
더 읽기: C4 관계·동격 / D1 겹친 절 / D2~D4 정확한 표현

그림과 함께 읽는 분류표

큰 범위	갈래	핵심	묶음
문장	홑문장	주어·서술어 관계 한 번	B1
겹문장	이어진문장 / 대등	나열·대조·선택	B2
겹문장	이어진문장 / 종속	원인·조건·목적·양보·시간의 선후 등	B2
겹문장	안은문장 / 명사절	명사처럼 주어·목적어 등으로 쓰임	B3
겹문장	안은문장 / 관형절	뒤 체언을 꾸밈	B4
겹문장	안은문장 / 부사절	서술어 등을 꾸밈	C1
겹문장	안은문장 / 서술절	큰 문장의 서술어 구실	C2
겹문장	안은문장 / 인용절	말·생각을 옮김	C3

이 책의 약속

- (가)·(나): 비교 자료 / ㉠·㉡: 판단 문장 / 안쪽 범위 [ ], 그보다 큰 범위 { }: 겹친 절의 범위 / 화살표 →: 분석·수정의 과정.
- 성분의 이름과 실제 범위를 구별한다. ‘관형절’은 종류이고, ‘친구가 만든’은 그 절의 범위이다.
- 절 자체와 조사까지 붙은 바깥 성분을 구별한다. ‘친구가 오기’는 명사절, ‘친구가 오기를’은 목적어 전체가 될 수 있다.
- 주어·목적어 등은 문맥상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된 성분을 복원한 뒤 관계 수와 자릿수를 판단한다.
- 본용언·보조 용언이 이루는 ‘읽고 싶다’ 등은 한 서술어로 센다.
- ‘발이 아프도록’, ‘눈이 부시게’처럼 서술어를 꾸미는 절은 부사절로 분석한다. ‘소리도 없이’와 같은 ‘-이’ 구성도 부사절로 분석한다. 원인·조건·목적·양보 및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는 연결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다룬다.
- ‘토끼는 귀가 길다.’ 유형은 ‘귀가 길다’를 서술절로 보는 분석을 따른다.
- 인용격 조사는 앞말이 인용한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직접 인용에는 ‘라고’, 간접 인용에는 ‘고’를 쓴다.
- 인용절 범위는 인용한 내용과 인용격 조사 ‘라고·고’를 함께 적는다. 이 표기 범위는 명사절 뒤의 격조사를 제외하는 약속과 구별한다.
- 문장 고치기의 모범 답은 한 가지 예이다. 발문의 조건을 지키고 같은 뜻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면 다른 답도 인정한다.

분석 4단계

1. **범위를 정한다.** 문장 전체인지, 표시된 절인지 먼저 확인한다.
2. **서술어와 필요한 성분을 찾는다.** 누가·무엇을·누구에게 등으로 묻는다.
3. **안쪽 관계를 복원한다.** 생략된 성분과 안긴절·연결된 절을 확인한다.
4. **뜻과 표현을 확인한다.** 역할·범위·호응이 맞고 의도한 뜻이 유지되는지 살핀다.

표시 틀 읽기

성분 띠는 문장의 말과 성분 이름을 위아래로 맞춘다. 층위표는 같은 말을 바깥 문장과 안긴절 안에서 나누어 읽는다. 청록색 굵은 테두리로 묶은 칸은 묶음 전체가 하나의 바깥 성분이라는 뜻이다. 조사는 원래 어절에 붙여 두되, 절 자체에 포함되는지는 설명 칸에서 구별한다.

한눈 지도 — 묶음 목차

묶음	핵심 내용	문항
A1	길이보다 결합 관계부터 보기	001~005
A2	조사만 보지 말고 역할 찾기	006~010
A3	꾸미는 대상과 독립성을 확인하기	011~015
A4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리 세기	016~020
B1	주어·서술어 관계로 홑문장과 겹문장 가르기	021~025
B2	절과 절의 의미 관계 읽기	026~030
B3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일 때	031~035
B4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절	036~040
C1	서술어 등을 꾸미는 부사절	041~045
C2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되는 절	046~050
C3	말과 생각을 옮기는 인용절	051~055
C4	관형절 속 빈자리 복원하기 · 고등 연결	056~060
D1	겹쳐 들어간 절의 범위 읽기	061~065
D2	필요한 성분과 호응 점검하기	066~070
D3	두 뜻으로 읽히는 범위 분명히 하기	071~075
D4	역할·짜임·표현을 함께 점검하기	076~080

S1 문장의 단위와 성분

A1 길이보다 결합 관계부터 보기

개념ID: 문법06-01 · 문법06-02 · 문법06-03

한 줄 정의 **구·절·문장은 길이가 아니라 결합 관계와 내용의 완결성을 살펴 구별한다.**

단위	판별 기준	문장 안의 예
구	둘 이상의 단어가 묶여 한 성분처럼 기능함. 묶음 자체는 주어·서술어 관계로 결합하지 않음	[이 세 상자]를 옮겼다. / [매우 조용히] 걸었다.
절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지며 큰 문장에 연결되거나 안겨 쓰임	[종이 울리면] 출발하자.
문장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함	종이 울린다.

G-01 구와 절의 테두리

구: 묶음 자체가 주어·서술어 관계로 결합하지 않음

아주 조용히

두 단어가 묶여 부사어처럼 쓰인다.

명사구 전체

누나가 (주어) 엮은 (서술어) **꽃목걸이** (중심 명사)

[누나가 엮은] 꽃목걸이

점선 안: 관형절 / 굵은 실선 안: 명사구 전체

꾸밈받는 '꽃목걸이'는 관형절 밖에 놓인다.

확인 순서: 어느 범위를 묶었는가 → 그 안에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는가 → 전체 말이 완결되었는가.

어절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단위이다. '우리 반 친구들'은 세 어절이지만, 그 묶음 자체에 주어·서술어 관계는 없다. 구 안에 절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안쪽과 바깥쪽을 따로 본다. 예를 들어 '[수아가 접은]

종이배’에서 대괄호 안은 관형절이고, ‘수아가 접은 종이배’ 전체는 명사구이다.

◆ 비유와 한계

블록 놀이를 떠올려 보자. 블록 몇 개를 붙인 덩어리는 구, 그 안에 ‘누가—한다’가 들어 있는 움직이는 부품은 절, 혼자 서는 완성품은 문장에 비길 수 있다. **이 비유는 결합 관계와 완결성을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다.** 블록 개수나 말의 길이로 구·절·문장을 나누지는 않는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어절 수	띄어쓰기와 관련된 단위의 수	‘우리 반 친구들’: 3어절, 절 0개
절의 수	주어·서술어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	‘종이 울리면’: 주어 종이 / 서술어 울리면

001 선택형

대괄호 안의 단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아이가 [아주 천천히] 걸었다.

(나)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자.

① (가)는 두 어절이므로 절이다.

② (나)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주어·서술어 관계가 없다.

③ (가)는 구이고, (나)는 절이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단어 하나이다.

⑤ 구와 절은 글자 수로 구별한다.

답 ____

002 서답형

두 묶음 중 절인 것을 고르고, 그 안의 주어와 서술어를 쓰자.

(가) 저 두 학생

(나) 햇빛이 비치면

항목	답
절인 것	
주어	
서술어	

003 선택형

표시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나는 [언니가 구운] 빵을 먹었다.

① ‘언니가 구운’은 절이고, ‘언니가 구운 빵’ 전체는 명사구이다.

② ‘빵’은 대괄호 안의 서술어이다.

③ ‘언니가 구운 빵’ 전체가 관형절이다.

④ ‘언니가 구운’에는 주어가 없다.

⑤ 구 안에는 절이 들어갈 수 없다.

답 ( )

004 서답형

① (가)의 주어와 서술어를 쓰자. ② (가) 뒤에 말을 이어 완결된 문장 하나를 쓰자. ③ (나)는 구·절·문장 중 무엇인지 쓰자.

(가) 눈이 그치면

(나) 눈이 그쳤다.

항목	답
① 주어 — 서술어	
② 완성한 문장	
③ 구·절·문장 중	

005 선택형

구·절·문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두 어절 이상이면 모두 절로 센다.

② 마침표가 없는 말에는 서술어가 없다고 본다.

③ 주어가 겉으로 없으면 절일 가능성을 제외한다.

④ 긴 덩어리는 모두 문장이라고 본다.

⑤ 범위를 정하고 주어·서술어 관계와 내용의 완결성을 살핀다.

답 ☐

A2 조사만 보지 말고 역할 찾기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5

한 줄 정의 **문장 성분은 문장 안의 역할이며,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를 주성분이라고 한다.**

성분	역할	예
주어	서술의 주체	'아기가 잔다.'의 아기가
서술어	동작·상태·성질 등을 서술	잔다 / 밝다 / 학생이다
목적어	타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	'준호가 문을 열었다.'의 문을
보어	'되다·아니다' 앞에서 주어 외에 필요한 성분. 기본적으로 이/가와 결합	'수아는 대표가 되었다.'의 대표가

확인 문장: '무엇이 되었는가?'에 해당하는 '대표가'는 보어이다. '대표가 웃었다.'에서 '대표가'는 주어이다. 같은 조사라도 서술어와 맺는 관계가 다르면 성분이 달라진다.

주어에 '은/는'이 붙거나 목적어에 '도'가 붙을 수 있다. '나는 귤도 먹었다.'에서 '나는'은 주어, '귤도'는 목적어이다. '성분 이름'과 '조사 이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분 띠

준호가	문을	열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 비유와 한계

학급에서 같은 학생이 발표자도 기록자도 맡을 수 있듯, 같은 명사도 문장에 따라 주어·목적어 등 다른 역할을 맡는다. **한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만 주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날씨가 춥다.'의 주어는 '날씨가'이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품사	단어의 종류	'수아'는 명사이다.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	'수아가 웃었다'의 수아가: 주어 / '수아를 불렀다'의 수아를: 목적어

006 서답형

굵게 표시한 두 부분의 문장 성분을 각각 쓰자.

(가) **민지는** 반장이 되었다.

(나) 민지는 **반장이** 되었다.

항목	답
(가)	
(나)	

007 선택형

문장 성분 분석이 바른 것은?

유나는 문을 닫았다.

① '유나는'은 목적어이다.
② '문을'은 목적어이다.
③ '닫았다'는 관형어이다.
④ '유나는'은 독립어이다.
⑤ '문을'은 보어이다.

답 ( )

008 서답형

조사 모양에만 기대지 말고 굵은 부분의 성분을 쓰자.

(가) **우리는** 귤도 먹었다.

(나) 우리는 **귤도** 먹었다.

(다) **귤이** 달다.

항목	답
(가)	
(나)	
(다)	

009 선택형

굵은 부분이 보어인 것은?

① **고양이가** 잔다.

② 언니가 **물을** 마신다.

③ 우리 동네는 **조용하다**.

④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⑤ **민호야**, 잠깐 기다려.

답 ☐

010 서답형

자료에서 주성분 네 가지(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를 찾아 쓰자. 없는 성분은 ‘없음’으로 쓰자.

하린이는 우산을 챙겼다.

항목	답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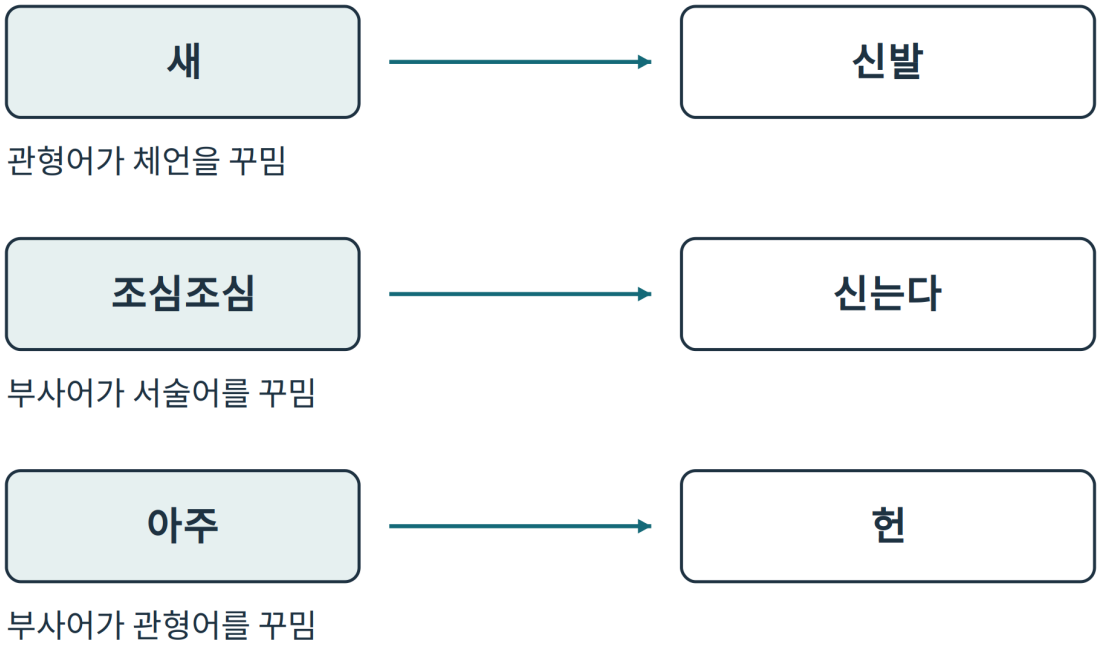
A3 꾸미는 대상과 독립성을 확인하기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6

한 줄 정의 **관형어는 체언을, 부사어는 용언·관형어·다른 부사어·문장 등을 꾸미며, 독립어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 관계 없이 쓰인다.**

성분	무엇을 확인할까?	예
관형어	뒤의 체언을 꾸미는가?	새 신발 / 동생의 신발 / 예쁜 신발
부사어	어떤 말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가?	몹시 춥다 / 아주 새 신발 / 매우 천천히 / 다행히 비가 그쳤다
독립어	부름·감탄·응답 등으로 독립해서 쓰이는가?	'지우야, 이리 와.'의 지우야 / '아, 알겠다.'의 아

G-03 꾸미는 말의 도착점



화살표의 도착점이 '꾸밈받는 말'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다. '부속'이라는 분류가 '언제나 빼도 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필수 부사어는 다음 묶음에서 확인한다.

품사와 성분 구별: '재빨리'는 부사이며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마당에서'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새'는 관형사지만, '수빈이의'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으로 관형어 역할을 한다.

성분 띠

지우야,	나는	새	신발을	조심조심	신는다
독립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빼도 됨)	서술어
		(안에서) 관형어			

‘새 신발을’ 전체가 목적어이고, 그 안의 ‘새’는 ‘신발’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7성분 한눈표

같은 장면: “와, 지우는 새 신발을 조심조심 신었다. 지우는 이제 선수가 되었다.”

갈래	성분	이렇게 물으면 찾는다	예
주성분	주어	누가/무엇이?	지우는
주성분	서술어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	신었다 / 되었다
주성분	목적어	누구를/무엇을?	새 신발을
주성분	보어	(되다·아니다) 무엇이?	선수가
부속 성분	관형어	어떤 (체언)?	새
부속 성분	부사어	어떻게/어디에서/언제?	조심조심 / 이제
독립 성분	독립어	부름·감탄·대답인가?	와

◆ 비유와 한계

꾸미는 말은 설명표처럼 어느 대상에 붙는지를 보여 준다. ‘새 가방’의 설명표는 가방에, ‘매우 빠르다’의 설명표는 빠르다는 성질에 붙는다. **한계:** 부사어를 떼어도 항상 문장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부사·관형사	단어의 종류	‘새’는 관형사, ‘재빨리’는 부사
부사어·관형어	단어 또는 말 덩어리가 맡는 역할	‘동생의 신발’의 동생의: 관형어 / ‘마당에서 논다’의 마당에서: 부사어

011 선택형

굵은 부분의 성분과 꾸미는 대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현이가 **새** 공책에 **또박또박** 쓴다.

① 새: 부사어, 쓴다를 꾸밈

② 또박또박: 관형어, 공책을 꾸밈

③ 새: 독립어, 문장 밖에 놓임

④ 또박또박: 목적어, 쓰는 대상임

⑤ 새: 관형어, 공책을 꾸밈

답 ____

012 서답형

굵은 부분의 문장 성분을 쓰자.

수빈아, **네** 동생이 **마당에서** 논다.

항목	답
수빈아	
네	
마당에서	

013 선택형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바르게 구별한 설명은?

(가) 지호가 빨리 달린다.

(나) 지호가 운동장에서 달린다.

① ‘빨리’와 ‘운동장에서’는 모두 단어 하나인 부사이다.

② ‘운동장에서’는 장소 이름이므로 목적어이다.

③ ‘빨리’는 부사이자 부사어이고, ‘운동장에서’도 부사어이다.

④ 부사어는 반드시 부사 한 단어로만 이루어진다.

⑤ ‘운동장에서’는 명사만으로 이루어져 조사가 없다.

답 ____

014 서답형

굵은 부사어가 직접 꾸미는 말을 각각 쓰자.

(가) 얼음이 **몹시** 차다.

(나) 아이가 **아주** 천천히 걷는다.

(다) 동생은 **아주** 새 신발을 신었다.

항목	답
(가)	
(나)	
(다)	

015 선택형

자료의 두 문장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유진아, 창문을 닫아라.

(나) 유진이가 창문을 닫았다.

① (가)의 '유진아'는 독립어이고, (나)의 '유진이가'는 주어이다.

② 이름이 같으므로 두 부분의 성분도 같다.

③ (가)의 '유진아'는 부르는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④ (나)의 '유진이가'는 관형어이다.

⑤ 쉼표가 있는 말은 모두 독립어이다.

답 ☐

A4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리 세기

개념ID: 문법06-07 · 문법06-08

한 줄 정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수이며, 서술어 자신은 세지 않는다.**

자릿수	필수 성분	예
한 자리	주어	해가 뜬다.
두 자리	주어+목적어	유진이가 과자를 먹는다.
두 자리	주어+보어	얼음이 물이 되었다.
두 자리	주어+필수 부사어	민호가 형과 닮았다.
세 자리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	수아가 서랍에 열쇠를 넣었다.

G-04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리

수아가 아침에 서랍에 열쇠를 넣었다.

① 누가	수아가	주어
② 어디에	서랍에	필수 부사어
③ 무엇을	열쇠를	목적어

양식을 정하는 서술어
넣었다 — 자리 번호 없음

추가 정보: 아침에
부사어(빼도 됨)

필수 성분 세 개 → 세 자리 서술어
문맥에서 성분이 생략되어도 필요한 자리는 남는다.

'넣다'는 **넣는 이·넣는 물건·넣는 곳**을 요구한다. '수아가 아침에 서랍에 열쇠를 넣었다.'에서 '아침에'는 시간 정보를 더하는 수의적(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어이고, '서랍에'는 '넣다'가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이다. 수의적 부사어는 해당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부사어이다.

빼 보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대화에서 '누가 넣었어?'에 '내가.'라고 답할 수 있어도, '넣다'가 한 자리 서술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문맥상 생략과 문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을 구별한다. 같은 낱말도 뜻이나 쓰임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시된 문장 속 뜻을 기준으로 한다.

성분 띠 — 서술어 자신에는 자리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수아가	아침에	서랍에	열쇠를	넣었다
주어	부사어(빼도 됨)	필수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①		②	③	

◆ 비유와 한계

서술어를 참가 신청서의 양식에 비겨 보자. '넣다' 양식에는 '누가·무엇을·어디에' 칸이 필요하다. 이미 아는 정보는 말에서 생략해도 양식의 필요한 칸은 남아 있다. **한계:** 실제 글에 보이는 어절 수를 자릿수로 세는 비유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문맥상 생략	이미 아는 정보를 말하지 않음	"누가 넣었어?" — "내가.": 물건·장소는 문맥에서 복원
필수 성분이 아님	서술어가 그 성분을 문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수아가 아침에 서랍에 열쇠를 넣었다'의 아침에: 추가 시간 정보

016 서답형

서술어와 필수 성분을 쓰고 자릿수를 판단하자. 필수 성분은 '○○이(주어)'처럼 실제 말과 성분 이름을 함께 쓰자.

우리는 민수를 대표로 삼았다.

항목	답
서술어	
필수 성분과 종류	
자릿수	

017 선택형

굵은 두 부사어를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지민이가 **어제** **책상에** 수첩을 놓았다.

① 둘 다 부사어이므로 반드시 수의적이다.

② 둘 다 시간을 나타낸다.

③ '어제'만 놓다의 필수 부사어이다.

④ '책상에'는 놓는 곳을 나타내는 필수 부사어이다.

⑤ '책상에'는 보어이다.

답 ☐

018 서답형

각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 성분의 종류를 쓰자.

(가) 아기가 잔다.

(나) 지우가 언니와 닮았다.

(다) 언니가 지우에게 연필을 주었다.

자료	자릿수	필수 성분
(가)		
(나)		
(다)		

019 선택형

대화 속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네가 하준이에게 지우개를 주었니?

나: 응, 주었어.

① 답에서 주어가 안 보이므로 '주다'는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 서술어이다.

② 답에서 성분이 생략되어도 '주다'는 이 뜻에서 세 자리이다.

③ '주었어'가 한 어절이므로 한 자리이다.

④ 생략된 성분은 모두 수의적 성분이다.

⑤ 서술어까지 포함해서 네 자리이다.

답 ☐

020 서답형

굵은 부분의 성분과 각 서술어의 자릿수를 쓰자.

(가) 동생은 **대표가** 되었다.

(나) 동생은 **형과** 닮았다.

자료	굵은 부분의 성분	자릿수
(가)		
(나)		

S2 문장 짜임과 명사절·관형절

B1 주어·서술어 관계로 홑문장과 겹문장 가르기

개념ID: 문법06-09 · 문법06-11

한 줄 정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이면 홑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겹문장이다.**

문장	복원한 관계	판단
그 아이는 오늘 마당에서 아주 조용히 걸었다.	아이가 걸었다	홑문장
나는 웃고 친구는 손뼉을 쳤다.	나는 웃었다 / 친구는 손뼉을 쳤다	겹문장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차를 마셨다 / 차가 따뜻하다	관형절을 안은 겹문장
수아는 물을 마시고 나갔다.	수아는 물을 마셨다 / 수아는 나갔다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겹문장

분석 순서: 서술하는 부분 찾기 → 생략된 주어 복원 → 주어·서술어 관계 세기.

겹문장은 절을 잇는 **이어진문장**과, 절을 한 성분처럼 품는 **안은문장**으로 나누어 본다. 절을 품은 문장 전체가 안은문장이고, 그 안에 들어간 절이 **안긴절(안긴문장이라고도 한다)**이다. 예를 들어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는 안은문장이고, '따뜻한'은 그 안의 관형절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읽고 싶다'는 이 책에서 한 서술어로 센다. '나는 만화책을 읽고 싶다.'를 '읽고'와 '싶다'로 나누어 겹문장이라 하지 않는다. 반면 '읽고 웃었다'는 읽는 일과 웃는 일을 잇는다.

◆ 비유와 한계

문장 길이는 기차의 길이처럼 늘어날 수 있지만, 홑문장·겹문장을 가르는 것은 길이가 아니다. '누가 어떠하다/무엇을 하다'라는 서술 관계가 몇 벌인지 센다. **한계:** 동사처럼 보이는 말의 개수를 기계적으로 세지 않는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긴 홑문장	꾸미는 말은 많아도 서술 관계는 한 번	'그 아이는 오늘 마당에서 아주 조용히 걸었다.'
짧은 겹문장	생략을 복원하면 서술 관계가 두 번 이상	'작은 새가 운다.': 새가 작다 / 새가 운다

021 선택형

홑문장인 것은?

① 나는 뛰고 동생은 걷는다.

② 예쁜 꽃이 피었다.

③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두 손으로 차를 드신다.

④ 종이 울리면 출발하자.

⑤ 내가 접은 종이배가 떠간다.

답 ____

022 서답형

각 문장의 주어·서술어 관계 수와 홑문장·겹문장 여부를 쓰자. (나)에 안긴 서술 관계도 복원하자.

(가) 그 학생은 오늘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했다.

(나) 그 학생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자료	관계 수	홑·겹
(가)		
(나)		

항목	답
(나)에 안긴 서술 관계	

023 선택형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하린이는 소설을 읽고 싶다.

(나) 하린이는 소설을 읽고 잤다.

이 책에서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을 한 서술어로 센다.

① 둘 다 '-고'가 있으므로 두 절이다.

② 둘 다 겉으로 주어가 하나이므로 홑문장이다.

③ (가)의 '싶다'에만 따로 주어를 만들어 두 절로 센다.

④ (나)는 서술어가 없다.

⑤ (가)는 홑문장이고, (나)는 읽는 일과 자는 일을 이은 겹문장이다.

답 ____

024 서답형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두 문장으로 나누자. 원래 문장은 홑문장·겹문장 중 무엇인지 쓰고, 겹문장이면 이어진문장·안은문장도 밝히자. 이어진문장이면 대등·종속까지 쓰자. 이 문장에서는 손을 씻은 뒤 식탁에 앉은 상황이다.

나래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항목	답
첫째 문장	
둘째 문장	
원래 문장의 짜임	

025 선택형

학생의 판단을 바로잡은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문장: 하얀 눈이 내린다.

학생: “주어 ‘눈이’가 한 번만 적혔으니 홑문장이다.”

① ‘눈이 하얗다’라는 관계도 복원되므로 겹문장이다.

② 한 문장 부호로 끝나면 모두 홑문장이다.

③ ‘하얀’은 관형사이므로 서술 관계가 없다.

④ 형용사는 서술어가 될 수 없다.

⑤ ‘내린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어진문장이다.

답 ☐

B2 절과 절의 의미 관계 읽기

개념ID: 문법06-10

한 줄 정의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으로, 대등한 연결과 종속적인 연결을 구별한다.**

연결	의미 관계	대표 연결 어미	예
대등	나열	-고	언니는 노래하고 동생은 춤춘다.
대등	대조	-지만	가방은 작지만 주머니는 많다.
대등	선택	-거나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걷는다.
종속	원인	-아서/-어서	비가 내려서 운동장이 젖었다.
종속	조건	-(으)면	준비가 끝나면 출발하자.
종속	목적	-(으)려고	누나는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다.
종속	양보	-아도/-어도	바람이 불어도 경기는 계속된다.
종속	시간(선후)	-고, -고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갔다. (신은 뒤 나감)

이 책의 기준: 앞의 일을 마친 뒤 다음 일을 하는 시간적 선후의 '-고(서)'는 종속적 연결로 분석한다. 단순히 두 사실을 나열하는 '-고'는 대등한 연결이다. 어미의 모양과 문맥을 함께 본다.

원인·조건·목적·양보 등을 나타내는 연결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다룬다.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 하나만으로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 비유와 한계

대등한 연결은 나란한 두 기찻칸처럼 어느 절도 다른 절을 설명하는 데 딸려 있지 않다. 종속적인 연결의 앞 절은 뒤 절의 장면에 '왜·언제·어떤 조건에서'를 알려 주는 안내판과 같다. **이 비유는 두 절 사이의 의미 관계를 떠올리는 데까지만 맞다.** 실제 이어진문장에는 연결 어미가 필요하며,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만으로 두 갈래를 나누지 않는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대등	나열·대조·선택 등	언니는 노래하고 동생은 춤춘다.
종속	원인·조건·목적·양보·시간의 선후 등	준비가 끝나면 출발하자.

026 서답형

각 문장의 절 사이 의미 관계와 대등·종속 여부를 쓰자.

(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나) 눈이 쌓여서 버스가 늦었다.

(다) 비가 그치면 산책하자.

자료	의미 관계	대등·종속
(가)		
(나)		
(다)		

027 선택형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인 것은?

① 준비가 끝나면 출발하자.

② 표는 작지만 글씨는 또렷하다.

③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걸었다.

④ 친구를 만나려고 공원에 갔다.

⑤ 비가 와도 경기는 계속된다.

답 ☐

028 서답형

두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 한 문장으로 쓰자. 원인이 앞에 오게 하자.

운동장에 물이 고였다. / 밤새 비가 내렸다.

항목	답
이어 쓴 문장	
대등·종속 중 무엇인지	

029 선택형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언니는 그림을 그리고 동생은 춤을 춘다. (단순 나열)

(나) 나는 문을 잠그고 집을 떠났다. (잠근 뒤 떠남)

① '-고'가 같으므로 두 문장의 의미 관계도 반드시 같다.

② (나)의 뒤 절은 앞 절보다 먼저 일어났다.

③ (가)는 원인과 결과만 나타낸다.

④ 어미가 같아도 단순 나열과 시간적 선후를 구별해야 한다.

⑤ 절의 의미는 연결 관계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

답 ☐

030 서답형

판단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고 틀린 판단의 이유를 쓰자.

기호	판단 문장
㉠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만으로 대등·종속을 언제나 확정할 수 있다.
㉡	'눈이 와도 우리는 출발한다.'는 이 책의 기준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이다.

항목	답
㉠	
㉡	
틀린 판단의 기호와 이유	

B3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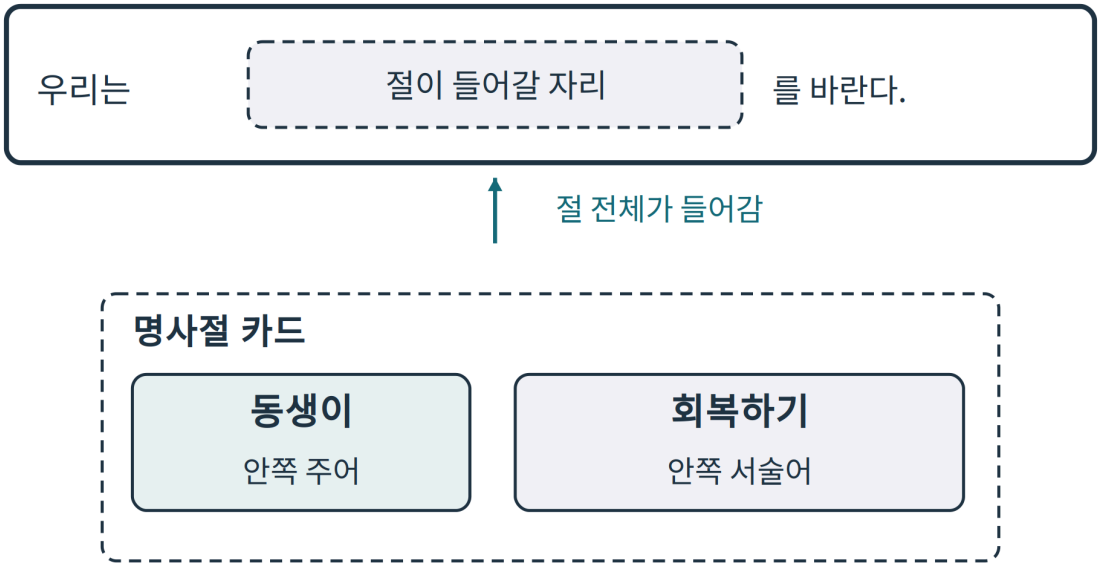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한 줄 정의 **명사절은 주어·서술어 관계를 지닌 절이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으)ㅁ·-기 등이 단서가 된다.**

문장	안긴 명사절	큰 문장 속 역할
[배가 도착했음]이 확인되었다.	배가 도착했음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
우리는 [동생이 회복하기]를 바란다.	동생이 회복하기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G-07 명사절이 들어가는 자리

바깥 문장 틀



바깥 역할: 조사 '를'과 합쳐 목적어

우리는 [동생이 회복하기]를 바란다.

명사절은 '회복하기'에서 닫는다.
'를'은 카드 밖에 있지만, 목적어 전체에는 포함된다.

안쪽과 바깥쪽을 따로 읽기: '우리는 [동생이 회복하기]를 바란다.'에서 안쪽의 주어는 '동생이', 서술하는 부분은 '회복하기'이다. 바깥에서는 '동생이 회복하기를' 전체가 '바란다'의 목적어이다.

절 자체의 범위를 쓸 때는 뒤의 조사 '이/가·을/를'을 빼고 적는다. 큰 문장 속 성분의 범위를 쓸 때는 조사까지 포함한다. 또한 끝 글자가 '기'인 명사라고 모두 명사절은 아니다. '딸기'에는 서술 관계도 명사형

어미도 없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우리는	주어	해당 없음
동생이	**목적어(명사절+를)**	주어
회복하기를		서술어: 회복하기 / 를은 절 밖
바란다	서술어	해당 없음

◆ 비유와 한계

여러 내용이 든 작은 상자를 큰 상자의 한 칸에 넣는 모습을 떠올리자. 안쪽에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고, 바깥에서는 그 절 전체가 한 성분으로 일한다. **한계:** 상자에 넣는다고 절 안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명사절의 종류	절이 명사처럼 쓰임	'동생이 회복하기': 명사절
문장 성분의 역할	주어·목적어 등으로 쓰임	'동생이 회복하기를': 큰 문장의 목적어

031 선택형

대괄호 안의 절 종류와 큰 문장 속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나는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란다.

① 관형절이며 '나는'을 꾸민다.

② 부사절이며 '이기기'를 꾸민다.

③ 서술절이며 큰 문장의 서술어이다.

④ 인용절이며 직접 인용이다.

⑤ 명사절이며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가 된다.

답 ____

032 서답형

명사절 자체와 주어 전체의 범위를 구별하여 쓰자.

기차가 도착했음이 알려졌다.

항목	답
명사절 자체	
큰 문장의 주어 전체	
큰 문장의 서술어	

033 선택형

명사절이 쓰인 문장은?

① 나는 딸기를 씻었다.
② 새 기기가 도착했다.
③ 우리는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④ 나는 새 연필을 샀다.
⑤ 저기 우산이 있다.

답 ☐

034 서답형

제시한 두 문장을 명사절을 안은문장으로 바꾸자. 명사형 어미 '-(으)ㅁ'을 사용하고 첫 문장의 내용을 주어로 삼자.

자료가 정확하다. /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항목	답
바꾼 문장	
명사절	

035 선택형

자료의 두 층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는 [민서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① 안쪽의 주어는 ‘민서가’이고, 바깥의 목적어는 ‘민서가 건강하기를’이다.

② 큰 문장의 목적어는 ‘민서가’만이다.

③ ‘건강하기’는 주어이고 ‘민서가’는 서술어이다.

④ ‘우리는’이 안긴절 안의 주어이다.

⑤ 안긴절이 있으므로 바깥 문장의 성분은 분석할 수 없다.

답 ☐

B4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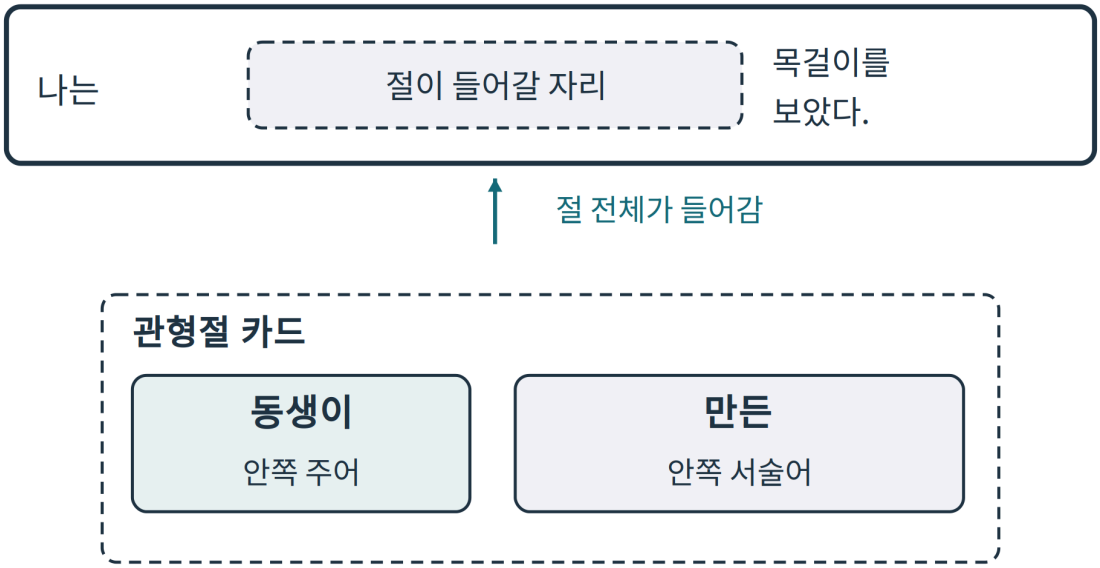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한 줄 정의 **관형절은 뒤의 체언을 꾸미는 절이며, 꾸밈받는 체언 자체는 관형절 밖에 둔다.**

표현	관형절	꾸밈받는 체언
[동생이 만든] 목걸이	동생이 만든	목걸이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
[푸른] 하늘	푸른	하늘

G-08 관형절이 들어가는 자리

바깥 문장 틀



바깥 역할: 뒤의 '목걸이'를 꾸미는 관형어

나는 [동생이 만든] 목걸이를 보았다.

꾸밈받는 '목걸이'는 관형절 카드 밖에 놓인다.
안쪽에서 생략된 목적어는 '목걸이를'로 복원한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으)ㄹ··던' 등이 단서가 된다. 다만 '새 가방'의 '새'처럼 관형사 한 단어로 꾸미는 경우와 구별한다. '푸른 하늘'의 '푸른'은 '하늘이 푸르다'의 관계를 가진다.

‘나는 [동생이 만든] 목걸이를 보았다.’에서 관형절은 ‘동생이 만든’이고, 큰 문장 속 목적어 전체는 ‘동생이 만든 목걸이를’이다. 관형절의 종류와 바깥 성분의 이름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나는	주어	해당 없음
동생이	**목적어**	주어
만든		서술어
목걸이를		절 밖: 꾸밈받는 명사+조사
보았다	서술어	해당 없음

안긴절 ‘동생이 만든’ 전체는 ‘목걸이’를 꾸미는 관형어이다. 절 안의 목적어는 ‘목걸이를’로 복원한다.

◆ 비유와 한계

관형절은 명사에 붙는 자세한 설명표와 같다. ‘목걸이’에 ‘동생이 만든’이라는 설명표가 붙는다. **한계:** 설명표가 붙는 명사까지 설명표 안에 넣지는 않는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관형사	‘새’처럼 단어의 종류	새 가방
관형절	주어·서술어 관계를 지닌 꾸밈말	[동생이 만든] 목걸이

036 서답형

관형절의 범위, 꾸밈받는 명사,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를 각각 쓰자.

나는 지수가 접은 종이학을 받았다.

항목	답
관형절	
꾸밈받는 명사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037 선택형

자료를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새 연필

(나) 긴 연필

① 두 표현의 첫말은 모두 관형사이다.

② (가)의 ‘새’는 관형사이고, (나)의 ‘긴’은 관형절이다.

③ ‘긴’은 동사이므로 ‘연필’을 꾸밀 수 없다.

④ ‘새’는 ‘연필이 새다’에서 온 관형절이다.

⑤ 관형어는 모두 관형절이다.

답 ____

038 서답형

두 문장을 관형절을 안은문장으로 합치자. ‘가방’은 한 번만 쓰고, ‘-는’을 사용하자.

민호가 가방을 멘다. / 그 가방은 가볍다.

항목	답
합친 문장	
관형절	

039 선택형

관형절의 범위를 정확히 표시한 것은?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샀다.

①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샀다.

②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샀다.

③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샀다.

④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샀다.

⑤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샀다].

답 ____

040 서답형

관형절을 찾아 쓰고, 복원한 서술 관계와 전체 문장의 짜임을 쓰자.

노란 풍선이 떠올랐다.

항목	답
관형절	
관형절에서 복원한 관계	
전체 문장의 짜임	

S3 안긴절과 생략 더 읽기

C1 서술어 등을 꾸미는 부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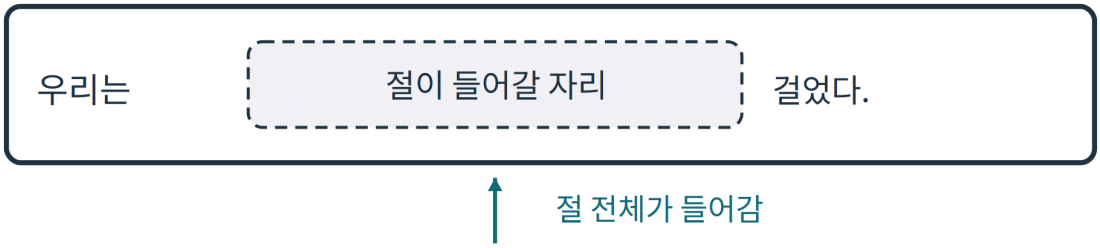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한 줄 정의 **부사절은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이 큰 문장에서 부사어 구실을 하는 것이다.**

문장	안긴 부사절	안쪽 관계
우리는 [발이 아프도록] 걸었다.	발이 아프도록	발이 아프다
바람이 [옷이 펄럭이게] 불었다.	옷이 펄럭이게	옷이 펄럭이다
[소리도 없이] 눈이 내렸다.	소리도 없이	소리가 없다

G-09 부사절이 들어가는 자리

바깥 문장 틀





바깥 역할: '걸었다'를 꾸미는 부사어

우리는 [발이 아프도록] 걸었다.

'발이 아프다'라는 안쪽 관계가 걸은 정도를 알려 준다.
안쪽 주어 '발이'를 부사절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 책의 분석 기준: '-게··도록'으로 서술어를 꾸미는 절과 '소리도 없이'처럼 '-이'가 결합한 구성을 부사절로 분석한다. '소리도 없이'에서는 '소리도'가 안쪽 주어이고 '없이'가 서술하는 부분이다. 원인·조건·양보를 나타내는 '-어서··면··어도' 등의 연결은 B2에서 다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분석한다.

'민호가 매우 오래 걸었다.'의 '매우 오래'는 부사구이다. '우리는 발이 아프도록 걸었다.'의 '발이 아프도록'은 안쪽에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는 부사절이다. 둘 다 부사어 구실을 해도 내부 구조는 다르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우리는	주어	해당 없음
발이	**부사어(부사절 전체)**	주어
아프도록		서술어
걸었다	서술어	해당 없음

◆ 비유와 한계

동작에 '얼마나·어떻게'라는 꼬리표를 달아 보자. '발이 아프도록'이라는 꼬리표 안에는 '발이 아프다'라는 작은 장면이 들어 있고, 꼬리표 전체는 걸은 정도를 알려 준다. **이 비유는 부사절의 안쪽 관계와 바깥 역할을 함께 보는 데까지만 맞다.** 모든 꼬리표, 곧 모든 부사어 안에 절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부사구	그 묶음 자체에 주어·서술어 관계 없음	[매우 오래] 걸었다.
부사절	안쪽에 주어·서술어 관계 있음	[발이 아프도록] 걸었다.

041 선택형

이 책의 기준에서 대괄호 안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는 [땀이 나도록] 뛰었다.

① 명사절이며 큰 문장의 목적어이다.

② 관형절이며 '우리'를 꾸민다.

③ 주어·서술어 관계가 없는 부사구이다.

④ 부사절이며 '뛰었다'를 꾸민다.

⑤ 독립어이며 다른 성분과 관계가 없다.

답 ____

042 서답형

부사절과 그 안쪽 주어·서술어를 쓰자.

나는 손이 저리도록 줄을 잡았다.

항목	답
부사절	
안쪽 주어	
안쪽 서술어	

043 선택형

두 대괄호 부분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아이가 [아주 오래] 웃었다.

(나) 아이가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① 둘 다 부사어 구실을 하지만, (나)에만 안쪽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다.

② 둘 다 명사절이다.

③ (가)의 '오래'는 주어이다.

④ (나)의 '배가'는 바깥 문장의 목적어이다.

⑤ 같은 역할을 하면 구와 절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답 ____

044 서답형

이 책의 기준에 따라 문장 짜임을 쓰고, 그 판단에 사용한 표현을 적자.

(가) 우리는 목이 쉬도록 응원했다.

(나) 비가 와서 경기가 미뤄졌다.

자료	문장의 짜임	판단에 쓴 표현
(가)		
(나)		

045 선택형

대괄호 안의 절 범위와 종류가 모두 바른 것은?

발자국도 없이 고양이가 사라졌다.

① [발자국도] 없이 고양이가 사라졌다. — 명사절

② 발자국도 [없이 고양이가] 사라졌다. — 관형절

③ [발자국도 없이] 고양이가 사라졌다. — 부사절

④ [발자국도 없이 고양이가 사라졌다]. — 인용절

⑤ 발자국도 없이 [고양이가] 사라졌다. — 서술절

답 ☐

C2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되는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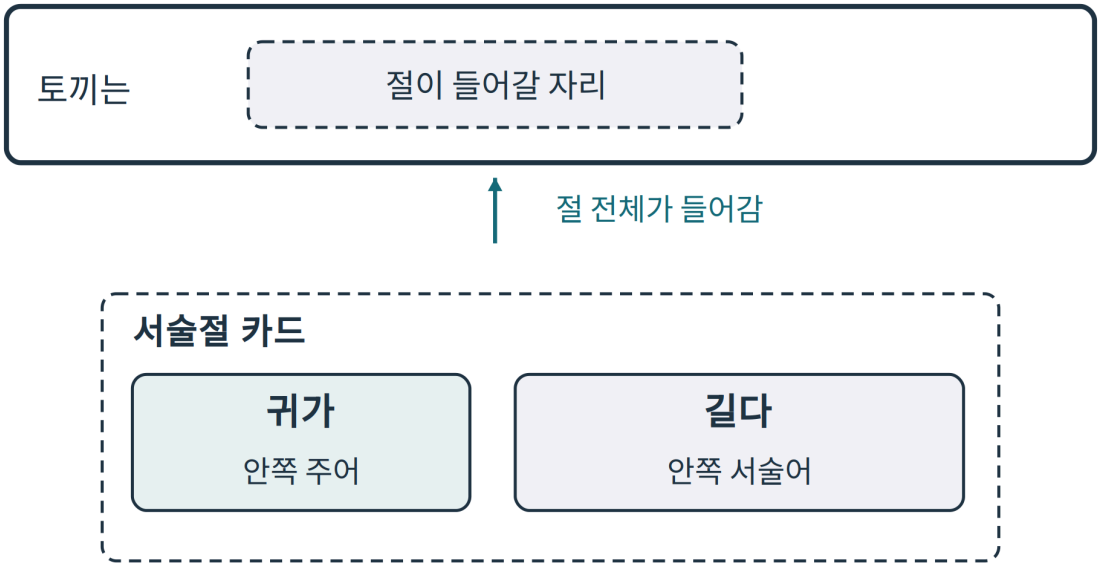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한 줄 정의 **서술절은 큰 문장의 서술어 구실을 하는 절이다. 서술절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절 표지는 없다.**

전체 문장	바깥 주어	서술절	안쪽 관계
토끼는 [귀가 길다].	토끼는	귀가 길다	귀가 — 길다
이 상자는 [뚜껑이 단단하다].	이 상자는	뚜껑이 단단하다	뚜껑이 — 단단하다

G-10 서술절이 들어가는 자리

바깥 문장 틀



바깥 역할: 큰 문장 전체의 서술어

토끼는 [귀가 길다].

큰 문장의 서술어는 '귀가 길다' 전체이다.
그 안의 서술어 '길다'와 범위를 구별한다.

이 책의 분석 기준: 위 문장들은 '귀가 길다', '뚜껑이 단단하다'를 서술절로 보는 학교 문법의 분석을 따른다. 바깥의 주어는 큰 대상을 제시하고, 안쪽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그 대상의 특징을 서술한다.

'토끼의 귀가 길다.'에서는 '토끼의'가 '귀'를 꾸미는 관형어이며, 전체는 하나의 주어·서술어 관계로 분석한다. '토끼는 귀가 길다.'와 형태·구조를 구별한다. 또한 '민호는 대표가 되었다.'의 '대표가'는

보어이므로, 체언에 조사가 두 번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술절이라 하지 않는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토끼는	주어	해당 없음
귀가	**서술어(서술절 전체)**	주어
길다		서술어

◆ 비유와 한계

큰 소개 카드의 제목이 '토끼는'이고, 설명 칸 전체에 '귀가 길다'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자. 설명 칸 안에도 '귀가'와 '길다'의 관계가 있다. **한계:** 체언이 두 번 나온 문장을 모두 서술절로 보는 것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귀가 길다	절 전체가 바깥 서술어 구실	토끼는 [귀가 길다].
길다	안쪽 절의 서술어	토끼는 귀가 [길다].

046 서답형

이 책의 서술절 분석에 따라 표를 완성하자.

기린은 목이 길다.

항목	답
바깥 주어	
서술절 전체	
서술절 안의 주어	
서술절 안의 서술어	

047 선택형

이 책의 기준에서 서술절을 안은문장인 것은?

① 나는 대표가 되었다.

② 민호는 학생이 아니다.

③ 수빈이는 물을 마셨다.

④ 친구가 오면 출발하자.

⑤ 이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답 ☐

048 서답형

굵은 부분의 성분을 쓰고, 두 문장의 짜임을 비교하자.

(가) **고양이는** 눈이 크다.

(나) **고양이의** 눈이 크다.

자료	굵은 부분의 성분	문장의 짜임
(가)		
(나)		

049 선택형

자료의 분석으로 알맞은 것은?

이 건물은 창문이 많다.

‘창문이 많다’를 서술절로 분석한다.

① ‘창문이’는 큰 문장의 목적어이다.

② ‘창문이 많다’ 전체가 큰 문장에서 서술어 구실을 한다.

③ ‘이 건물은’은 서술절 안쪽의 목적어이다.

④ ‘많다’ 앞에 특별한 인용격 조사가 있다.

⑤ 서술절에는 안쪽 주어가 존재할 수 없다.

답 ☐

050 서답형

굵은 부분이 큰 문장에서 맡는 성분을 쓰자. 절이면 절의 종류도 쓰자. 두 부분을 구별한 이유도 쓰자.

(가) 소라는 **주장이** 되었다.

(나) 소라는 **손이 작다**.

항목	답
(가)	
(나)	
구별 이유	

C3 말과 생각을 옮기는 인용절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한 줄 정의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등을 가져와 담는 절이다.**

방식	예	확인할 점
직접 인용	민지가 [“나는 준비됐어.”라고] 말했다.	원래 표현을 그대로 옮김. 따옴표와 라고가 단서
간접 인용	민지가 [자신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꾸어 옮김. 고가 단서

G-11 녹음 재생과 전달 메모

민지의 원래 말: “나는 준비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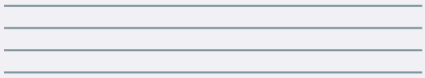
직접 인용 · 녹음 재생



민지가
“나는 준비됐어.”라고
말했다.

원래 표현을 그대로

간접 인용 · 전달 메모



민지가
자신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전달 관점에 맞게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 / 간접: 인용격 조사 ‘고’

‘나’와 ‘자신’이 가리키는 사람은 모두 민지이다.

표현을 바꾸어도 말한 내용은 유지한다.

범위 표기 약속: 이 책에서는 인용한 내용과 인용격 조사 ‘라고·고’를 함께 대괄호로 묶어 인용절의 범위를 나타낸다. 문항에서 범위를 쓸 때도 이 약속을 따른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말한 사람, 듣는 사람, 전달하는 때와 장소를 확인한다. 원래 말의 ‘나·여기·내일’을 무조건 그대로 두지 않는다. 구체적인 바꾸기는 문법 표현편에서 더 다룬다.

‘언니가 웃고 동생이 박수 친다.’의 ‘-고’는 절을 잇는 연결 어미이다. ‘언니가 곧 온다고 말했다.’의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이다. 마지막 글자만 보고 같은 기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민지가	주어	해당 없음
자신이	**부사어(인용절 전체)**	주어
준비됐다고		서술어: 준비됐다 / 인용격 조사 고
말했다	서술어	해당 없음

인용절은 '말했다'를 꾸며 말한 내용을 밝힌다. 인용절 안의 주어와 바깥 주어를 따로 읽는다.

안긴절 다섯 가지 한눈표

안긴절	알아보는 단서	큰 문장에서 하는 일	예	범위 쓸 때 주의
명사절	-(으)ㅁ, -기	주어·목적어 등	[배가 도착했음]이 확인되었다.	뒤의 격조사는 절 밖
관형절	-(으)ㄴ, -는, -(으)ㄹ, -던	뒤 체언을 꾸밈	[동생이 만든] 목걸이	꾸밈받는 체언은 절 밖
부사절	-게, -도록, -이(없이·달리) 등	서술어 등을 꾸밈	[소리도 없이] 눈이 내렸다.	안쪽 주어까지 포함
서술절	특별한 표지 없음	큰 문장의 서술어	토끼는 [귀가 길다].	안쪽 주어+서술어 전체
인용절	인용격 조사 라고(직접)·고(간접)	부사어(말한 내용을 밝힘)	민지가 [자신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책은 인용격 조사까지 포함

◆ 비유와 한계

직접 인용은 녹음 재생, 간접 인용은 내용을 정리한 전달 메모에 비길 수 있다. **한계:** 간접 인용은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 관점에 맞게 표현을 바꾸어도 원래 뜻을 유지해야 한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연결 어미 -고	절과 절을 연결	언니가 웃고 동생이 박수 친다.
인용격 조사 고	앞말을 간접 인용함을 나타냄	언니가 곧 온다고 말했다.

051 선택형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은지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② 준서가 자신도 가겠다고 말했다.

③ 하린이가 오늘 쉰다고 말했다.

④ 민재가 “지금 출발하자.”라고 말했다.

⑤ 친구가 책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

답 ____

052 서답형

이 책의 범위 약속에 따라 인용절 전체와 바깥 서술어를 쓰고, 직접·간접 인용 중 무엇인지 쓰자.

민호가 자신이 열쇠를 찾았다고 말했다.

항목	답
인용절 전체	
바깥 서술어	
인용 방식(직접·간접 중)	

053 선택형

두 ‘고’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지우가 웃고 수아가 박수 친다.

(나) 지우가 웃는다고 수아가 말했다.

① (가)는 연결 어미, (나)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이다.

② 둘 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이다.

③ 둘 다 명사형 어미이다.

④ (가)는 인용격 조사, (나)는 단순 나열의 연결 어미이다.

⑤ 끝 글자가 같으므로 기능도 반드시 같다.

답 ____

054 서답형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자. ‘내가’는 ‘자신이’로 바꾸고, 인용절도 쓰자.

민호가 “내가 창문을 닫았어.”라고 말했다.

항목	답
간접 인용 문장	
인용절	

055 선택형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간접 인용에서는 원래 뜻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② 직접 인용에는 원래 발화자의 표현을 남길 수 없다.

③ 간접 인용에서는 전달 관점에 맞게 표현을 바꾸되 원래 뜻을 유지한다.

④ ‘-고’가 보이면 언제나 인용절이다.

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따옴표만 바꾸면 모든 표현이 자동으로 맞는다.

답 ☐

C4 관형절 속 빈자리 복원하기 · 고등 연결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2

한 줄 정의 **관계 관형절은 뒤 명사가 절 속 빈자리를 채우는 절이고, 동격 관형절은 절 내용이 곧 뒤 명사의 내용이 되는 절이다.**

표현	복원	판단
[웃는] 아이	아이가 웃는다.	'아이'에 대응하는 주어 생략
[내가 고른] 색연필	내가 색연필을 골랐다.	'색연필'에 대응하는 목적어 생략
[내가 사는] 마을	내가 마을에 산다.	'마을'에 대응하는 부사어 생략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대회가 취소되었다.	내용 자체가 소식임: 동격 관형절

G-12 관계와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 뒤 명사가 절 안의 빈자리를 채움

[내가 고른] 색연필

절 안: 내가 [빈자리] 골랐다.

↑

색연필을

동격 관형절 · 절 내용이 뒤 명사의 내용이 됨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소식의 내용 = 대회가 취소되었다.

'소식이 취소되었다'로 바꾸지 않는다.

관계: 문장 속 성분을 복원한다.

동격: 어떤 내용인지를 읽는다.

관계와 동격: '내가 고른 색연필'의 '색연필'은 고른 대상이어서 관형절 안의 목적어에 대응한다.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의 '소식'은 취소된 대상이 아니다.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내용 자체를 가리킨다.

아무 성분이나 생략되어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꾸밈받는 명사에 대응하는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생략된 성분을 쓸 때는 '아이가·색연필을·마을에'처럼 조사까지 복원한다.

◆ 비유와 한계

관계 관형절은 빈칸이 있는 설명문처럼 읽을 수 있다. '내가 ___ 골랐다'의 빈칸에 '색연필을'을 넣어 보는 것이다. **한계:** 동격 관형절의 뒤 명사를 억지로 끼워 넣어 빈칸을 만들지 않는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관계 관형절	뒤 명사가 절 안의 성분에 대응	내가 고른 색연필: 내가 색연필을 골랐다.
동격 관형절	절의 내용 자체가 뒤 명사의 내용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취소 사실 자체가 소식

056 서답형

꾸밈받는 명사를 절 안에 넣어 문장을 복원하자. 생략된 성분은 조사까지 쓰고, 성분 이름도 쓰자.

(가) 달리는 아이

(나) 수아가 찍은 사진

자료	복원한 문장	생략된 성분	성분 이름
(가)			
(나)			

057 선택형

두 관형절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내가 산 모자

(나) 버스가 고장 났다는 소식

① 둘 다 꾸밈받는 명사가 절 안의 목적어에 대응한다.

② (가)에서 생략된 것은 '모자가'라는 주어이다.

③ (나)는 '소식이 고장 났다'로 복원한다.

④ 둘 다 관형절이 아니다.

⑤ (가)는 관계 관형절이고, (나)는 내용 자체를 나타내는 동격 관형절이다.

답 ☐

058 서답형

관형절 속에서 생략된 부분을 조사까지 복원하고, 그 성분이 필수 성분인지까지 이름에 밝혀 쓰자.

민호가 사는 마을

항목	답
복원한 문장	
생략된 부분	
성분 이름(필수 성분인지까지)	

059 선택형

자료에서 생략된 성분을 바르게 복원한 것은?

친구가 빌린 우산

① 우산이 — 주어

② 우산을 — 목적어

③ 우산에게 — 필수 부사어

④ 우산의 — 관형어

⑤ 우산아 — 독립어

답 ____

060 서답형

학생의 판단을 고치고, 꾸밈받는 명사와 절 내용의 관계를 설명하자.

표현: 동생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

학생: “뒤의 ‘사실’을 주어로 넣으면 ‘사실이 상을 받았다’이므로 관계 관형절이다.”

항목	답
관형절의 갈래	
‘사실’과 절 내용의 관계	

S4 범위 분석과 정확한 표현

D1 겹쳐 들어간 절의 범위 읽기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한 줄 정의 **절이 다른 절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쪽부터 범위를 정하고, 각 층위의 역할을 따로 읽는다.**

한 문장을 층위별로 묶기

나는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를 바란다.

범위	종류 또는 역할
언니가 만든	‘인형’을 꾸미는 관형절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	바깥 문장에 안긴 명사절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를	큰 문장의 목적어
나는 / 바란다	큰 문장의 주어 / 서술어

G-13 겹친 절의 범위

나는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를 바란다.
안쪽은 [ ], 그보다 큰 절은 { }로 묶는다.

① 관형절
[언니가 만든]
'인형'을 꾸민다.

② 명사절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
인형이 예쁘다는 내용 전체이다.

③ 목적어 전체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를
명사절 뒤 조사 '를'까지 포함한다.

절의 종류와 큰 문장에서의 역할은 따로 확인한다.

명사절 안의 주어 전체는 '언니가 만든 인형이'이다. 그 주어 안에 관형절 '언니가 만든'이 들어 있다.
관형절 자체, 명사절 자체, 조사까지 포함한 목적어를 같은 범위로 적지 않는다.

겹친 절 범위 정하기 순서: ① 바깥 서술어 찾기 → ② 바깥 성분 전체 묶기 → ③ 묶음 안의 절 찾기 → ④ 더 안쪽 절이 있는지 확인하기.

이 순서는 앞쪽 분석 4단계 중 ③ '안쪽 관계를 복원한다'를 자세히 펼친 것이다.

층위표 — 바깥 문장·명사절·관형절

어절	바깥 문장에서	명사절 안에서	관형절 안에서
나는	주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언니가	**목적어**	**주어**	주어
만든			서술어
인형이			절 밖: 꾸밈받는 명사
예쁘기를		서술어: 예쁘기 / 를은 절 밖	해당 없음
바란다	서술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형절 안의 목적어는 '인형을'로 복원한다.

◆ 비유와 한계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안쪽 폴더를 찾았다고 바깥 폴더 전체의 이름을 바꾸지는 않는다. **한계:** 폴더의 개수를 그대로 절의 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각 묶음의 서술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안긴절 자체	해당 절의 끝까지 묶음	관형절: 언니가 만든
그 절을 포함한 성분 전체	꾸밈받는 명사와 조사 등도 포함할 수 있음	목적어: 언니가 만든 인형이 예쁘기를

061 선택형

대괄호와 중괄호의 범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나는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아이를 보았다.

대괄호는 안쪽 묶음, 중괄호는 그보다 큰 묶음이다.

① 대괄호는 관형절, 중괄호는 명사절이다.

② 두 묶음은 모두 큰 문장의 주어이다.

③ 대괄호는 명사절, 중괄호는 관형절이다.

④ ‘아이’까지 중괄호 안에 넣어야 관형절이다.

⑤ 대괄호 안에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없다.

답 ____

062 서답형

세 범위를 구별해 쓰자. 절 자체를 쓸 때에는 바깥 조사 ‘을’을 제외하자.

우리는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을 확인했다.

항목	답
안쪽 관형절	
명사절 전체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063 선택형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알맞은 것은?

나는 동생이 읽은 책을 빌렸다.

① 문장 전체가 한 어절이므로 홑문장이다.

② ‘책을 빌렸다’는 명사절이다.

③ 큰 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이다.

④ 관형절은 ‘읽은 책을’이다.

⑤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는 ‘동생이 읽은 책을’이다.

답 ☐

064 서답형

복원할 수 있는 세 서술 관계를 안쪽부터 바깥쪽 순서로 쓰자. 모두 ‘주어 — 서술어’ 꼴로 쓰고, 필요하면 목적어를 괄호 안에 덧붙이자. 예: ‘동생이 — (책을) 읽었다’.

나는 수아가 접은 종이배가 뜨기를 바란다.

항목	답
가장 안쪽 관계	
그다음 관계	
가장 바깥쪽 관계	

065 선택형

절이 여러 겹 들어간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각 범위를 표시하고 그 범위 안의 주어·서술어와 바깥 역할을 구별한다.

② 가장 긴 묶음만 절로 인정한다.

③ 안쪽 절을 찾으면 바깥 서술어는 제외한다.

④ 명사절 안에는 다른 종류의 절이 들어갈 수 없다.

⑤ 모든 조사를 무조건 절 안에 넣는다.

답 ☐

D2 필요한 성분과 호응 점검하기

개념ID: 문법06-07 · 문법06-08 · 문법06-14

한 줄 정의 **문장을 고칠 때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과 성분 사이의 의미·문법적 호응을 확인한다.**

점검할 것	어색한 문장	고친 예
주어·서술어 호응	이 기계의 장점은 전기를 적게 쓴다.	이 기계의 장점은 전기를 적게 쓴다는 점이다.
목적어·서술어 호응	나는 배낭과 모자를 썼다.	나는 배낭을 메고 모자를 썼다.
서술어마다 필요한 조사	나는 친구를 만나고 헤어졌다.	나는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헤어졌다.
부사어·서술어 호응	동생은 별로 기뻐한다.	동생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중복	우리는 작업을 다시 재시작했다.	우리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고치는 순서: 전달하려는 뜻 확인 → 어울리지 않는 성분과 서술어 표시 → 필요한 부분만 고치기 → 원래 뜻 유지 확인.

문맥상 생략된 성분이 있다고 모두 잘못된 문장은 아니다. 앞뒤 문맥에서 복원되는 일상 대화와,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조사를 요구하는 성분을 부정확하게 공유한 경우를 구별한다. 불필요한 중복도 문장 속 쓰임을 보고 판단하며, 단순히 비슷한 말 두 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우지 않는다.

◆ 비유와 한계

문장 고치기는 조립한 부품의 연결 부위를 확인하는 일과 비슷하다. '배낭을'은 '메다'에, '모자를'은 '쓰다'에 연결한다. **한계:** 단어마다 연결 대상이 하나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문맥상 생략	문맥에서 필요한 내용을 복원할 수 있음	"누구를 만났니?" — "친구를.": 만났다를 복원
호응의 어색함	성분과 서술어 등이 문법·의미상 어울리지 않음	'나는 배낭과 모자를 썼다.': 배낭은 메었다고 고침

066 서답형

‘내 희망은’을 유지하고, 그 주어와 호응하도록 문장을 고치자.

내 희망은 작가가 되고 싶다.

항목	답
고친 문장	
고친 이유	

067 선택형

밑의 뜻을 유지하면서 어색함을 고친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원문: 소라는 빵과 주스를 마셨다.

의도: 소라는 빵을 먹었고 주스를 마셨다.

① 소라가 마신 것은 빵과 주스였다.

② 소라는 빵을 먹고 주스를 마셨다.

③ 소라는 빵을 마시고 주스를 먹었다.

④ 소라는 주스만 마셨다.

⑤ 소라는 빵만 먹었다.

답 ☐

068 서답형

‘지키다’와 ‘익숙해지다’가 각각 요구하는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문장을 고치자. 두 서술어를 모두 유지하자.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고 익숙해졌다.

항목	답
고친 문장	
지키다와 연결되는 성분	
익숙해지다와 연결되는 성분	

069 선택형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고친 문장은?

원문: 나는 결코 포기한다.

① 나는 결코 이미 포기한다.
② 나는 결코 포기하는가?
③ 나는 가끔 포기한다.
④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⑤ 나는 반드시 포기한다.

답 ☐

070 서답형

불필요한 반복을 줄여 문장을 고치자. ‘지각의 이유는’은 유지하자.

지각의 이유는 버스 고장이 이유이다.

항목	답
고친 문장	
줄인 부분	

D3 두 뜻으로 읽히는 범위 분명히 하기

개념ID: 문법06-15

한 줄 정의 **중의성은 한 표현이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성질이며, 원인과 의도한 뜻에 맞게 풀어 쓴다.**

원인	표현	뜻을 분명히 하는 방법
어휘적 중의성 (단어의 여러 뜻)	눈이 이상하다.	신체의 눈인지 내리는 눈인지 밝힘
구조적 중의성(수식 범위)	나는 웃는 친구와 동생을 보았다.	어순 바꾸기 · 쉼표 넣기 · 꾸밈말 반복하기로 수식 범위를 밝힘
구조적 중의성(비교 대상)	나는 민호보다 수아를 더 좋아한다.	나와 민호를 비교(누가 수아를 더 좋아하나) / 민호와 수아를 비교(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나)
부정 범위	모두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음 / 일부만 옴을 구별
구조적 중의성(명사 사이 관계)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가 그린 그림 / 아버지를 그린 그림 / 아버지가 가진 그림

G-15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



실선 칸: 도착 / 점선 칸: 아직 안 옴
두 장면 모두 같은 네 명의 도착 여부를 비교한다.

두 해석을 적고 고치기: '나는 민호보다 수아를 더 좋아한다.'는 ① 민호가 수아를 좋아하는 정도보다 내가 더 좋아한다, ② 내가 민호를 좋아하는 정도보다 수아를 더 좋아한다로 읽힐 수 있다. 의도에 맞게 비교하는 두 대상을 드러낸다.

중의적인 문장이 언제나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때에는 맥락을 보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어 한 뜻으로 읽히게 한다.

◆ 비유와 한계

갈림길 표지판이 두 방향을 가리키듯, 한 표현에서 해석이 갈라질 수 있다. 어느 길을 뜻하는지 말을 보태어 안내한다. **한계:** 중의성이 있다고 모두 잘못된 문장인 것은 아니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문법적 오류	성분이나 호응 등에 문제가 있음	'동생은 별로 기뻐한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점검
중의성	하나의 표현이 여러 뜻으로 해석됨	'아버지의 그림': 그린 사람·그림 속 대상·소유자 등이 가능

071 선택형

'할머니의 사진'을 '할머니가 찍힌 사진'이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고친 것은?

① 할머니가 보관하는 사진

② 할머니가 찍은 사진

③ 할머니가 산 사진

④ 할머니에게 받은 사진

⑤ 할머니가 나온 사진

답 ____

072 서답형

두 해석을 구별하여 문장을 고치자.

모든 학생이 도착하지 않았다.

항목	답
전체 부정: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음	
부분 부정: 일부는 도착함	

073 선택형

의도한 뜻과 가장 정확하게 맞는 문장은?

의도: 나도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동생도 강아지를 무서워하지만, 내가 더 무서워한다.

① 나는 동생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강아지를 더 무서워한다.

② 나는 강아지보다 동생을 더 무서워한다.

③ 나는 동생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강아지를 더 무서워한다.

④ 강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무서워한다.

⑤ 나는 동생과 강아지를 똑같이 무서워한다.

답 ☐

074 서답형

두 뜻을 각각 분명히 드러내도록 고쳐 쓰자.

나는 파란 공과 장난감을 샀다.

항목	답
‘파란’이 공만 꾸밈	
‘파란’이 공과 장난감을 모두 꾸밈	

075 선택형

중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여러 해석이 가능해도 문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뜻을 분명하게 고친다.

② 중의성이 있으면 언제나 비문이다.

③ 문맥은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뜻을 분명히 하려면 반드시 단어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

⑤ 한 단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중의성이 생길 수 없다.

답 ☐

D4 역할·짜임·표현을 함께 점검하기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7 · 문법06-09 · 문법06-11 · 문법06-12 · 문법06-13 · 문법06-14 · 문법06-15

한 줄 정의 **문장 분석은 역할·서술 관계·절의 범위·전달하려는 뜻을 차례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단계	분석 4단계의 질문	점검할 것
1	범위를 정한다	문장 전체인지, 표시된 절인지
2	서술어와 필요한 성분을 찾는다	바깥 서술어와 필수 성분
3	안쪽 관계를 복원한다	안긴절·연결된 절·생략 성분
4	뜻과 표현을 확인한다	호응·중복·수식 범위·비교 대상·부정 범위

‘민지는 [친구가 만든] 장난감을 동생에게 주었다.’에서 바깥 서술어는 ‘주었다’이다. 주는 이·주는 물건·받는 이를 찾으면 각각 ‘민지는·친구가 만든 장난감을·동생에게’이다. 물건을 나타내는 덩어리 안에는 관형절 ‘친구가 만든’이 있고, 그 안의 목적어 ‘장난감을’을 복원할 수 있다.

답을 쓸 때: 절 종류만 묻는지, 절의 범위를 묻는지, 큰 문장 속 성분을 묻는지 구별한다. ‘관형절’이라는 이름만 써서는 ‘관형절을 찾아 쓰자’라는 범위 요구에 답한 것이 아니다.

◆ 비유와 한계

한 건물을 볼 때 주소·방의 용도·방 안의 구조를 구별하듯, 문장도 바깥 역할과 안쪽 구조를 따로 확인한다. **한계:** 하나의 말 덩어리에 이름이 여러 개 붙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분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예
‘관형절’	절의 종류에 대한 답	“어떤 종류인가?” — 관형절
‘친구가 만든’	절의 실제 범위에 대한 답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 친구가 만든

076 서답형

바깥 문장과 안쪽 절을 나누어 표를 완성하자.

지우는 언니가 만든 팔찌를 친구에게 주었다.

항목	답
바깥 서술어와 자릿수	
바깥 주어	
바깥 목적어 전체	
바깥 필수 부사어	
안긴절의 범위와 종류	

077 선택형

이 책의 기준에 따른 분석이 바른 것은?

① 나는 아주 천천히 걷는다. — 두 절이 이어진 겹문장

② 나는 새 모자를 샀다. — ‘새’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

③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서술절을 안은문장

④ 나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린다. — 명사절을 안은문장

⑤ 비가 오면 실내에서 놀자.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답 ☐

078 서답형

학생 답에서 틀린 곳 두 가지를 짚고, 정확한 관형절의 범위와 생략된 성분을 쓰자. 마지막으로 절 안의 문장을 복원하자.

문장: 나는 민호가 그린 지도를 보았다.

학생 답: “관형절은 ‘민호가 그린 지도’이고, 그 안에서 ‘지도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항목	답
학생 답에서 틀린 곳 두 가지	
관형절의 정확한 범위	
생략된 성분	
복원한 문장	

079 선택형

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그는 좀처럼 약속을 어긴다.

(나) 지수의 그림

① (가)와 (나)는 모두 반드시 틀린 문장이다.

② (가)는 부사어·서술어 호응을, (나)는 두 명사 사이의 의미 관계를 확인한다.

③ (가)는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연결되었다.

④ (나)는 언제나 지수가 그린 그림만 뜻한다.

⑤ (가)는 주어를 두 번 쓰기만 하면 자연스러워진다.

답 ☐

080 서답형

① ‘내 바람은’과 친구의 회복을 바라는 뜻을 살려 ‘…것이다’ 꼴로 고치자. ② 고친 문장에서 관형절의 범위와 그 관형절이 꾸미는 말을 쓰자.

내 바람은 친구가 회복하기를 바란다.

항목	답
고친 문장	
고친 문장의 관형절	
관형절이 꾸미는 말	

S5 정답 한눈표

서답형은 모범 답의 요약이다. 인정 범위와 이유는 뒤의 해설을 확인한다.

001 ③

002 절인 것: (나)
주어: 햇빛이
서술어: 비치면

003 ①

004 ① 주어 — 서술어: 눈이 — 그치면
② 완성한 문장: 눈이 그치면 밖에 나가자.
③ 구·절·문장 중: 문장

005 ⑤

006 (가): 주어
(나): 보어

007 ②

008 (가): 주어
(나): 목적어
(다): 주어

009 ④

010 주어: 하린이는
서술어: 챙겼다
목적어: 우산을
보어: 없음

011 ⑤

012 수빈아: 독립어
네: 관형어
마당에서: 부사어

013 ③

014 (가): 차다
(나): 천천히
(다): 새

015 ①

016 서술어: 삼았다
필수 성분과 종류: 우리는(주어)·민수를(목적어)·대표로(필수 부사어)
자릿수: 세 자리

017 ④

018 (가) 자릿수: 한 자리
(가) 필수 성분: 주어
(나) 자릿수: 두 자리
(나) 필수 성분: 주어·필수 부사어
(다) 자릿수: 세 자리
(다) 필수 성분: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

019 ②

020 (가) 굵은 부분의 성분: 보어
(가) 자릿수: 두 자리
(나) 굵은 부분의 성분: 필수 부사어
(나) 자릿수: 두 자리

021 ③

022 (가) 관계 수: 한 번
(가) 홑·겹: 홑문장
(나) 관계 수: 두 번
(나) 홑·겹: 겹문장
(나)에 안긴 서술 관계: 도서관이 조용하다

023 ⑤

024 첫째 문장: 나래는 손을 씻었다.
둘째 문장: 나래는 식탁에 앉았다.
원래 문장의 짜임: 겹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025 ①

026 (가) 의미 관계: 나열
(가) 대등·종속: 대등
(나) 의미 관계: 원인과 결과
(나) 대등·종속: 종속
(다) 의미 관계: 조건
(다) 대등·종속: 종속

027 ②

028 이어 쓴 문장: 밤새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물이 고였다.
대등·종속 중 무엇인지: 종속적인 연결

029 ④

030 ㉠: X
㉡: O
틀린 판단의 기호와 이유: ㉠: 순서 변화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연결 어미와 절 사이 의미를 함께 보아야 한다.

031 ⑤

032 명사절 자체: 기차가 도착했음
큰 문장의 주어 전체: 기차가 도착했음이
큰 문장의 서술어: 알려졌다

033 ③

034 바꾼 문장: 자료가 정확함이 확인되었다.
명사절: 자료가 정확함

035 ①

036 관형절: 지수가 접은
꾸밈받는 명사: 종이학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지수가 접은 종이학을

037 ②

038 합친 문장: 민호가 메는 가방은 가볍다.
관형절: 민호가 메는

039 ④

040 관형절: 노란
관형절에서 복원한 관계: 풍선이 노랗다
전체 문장의 짜임: 겹문장(관형절을 안은문장)

041 ④

042 부사절: 손이 저리도록
안쪽 주어: 손이
안쪽 서술어: 저리도록

043 ①

044 (가) 문장의 짜임: 부사절을 안은문장
(가) 판단에 쓴 표현: 목이 쉬도록
(나) 문장의 짜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나) 판단에 쓴 표현: 비가 와서(원인)

045 ③

046 바깥 주어: 기린은
서술절 전체: 목이 길다
서술절 안의 주어: 목이
서술절 안의 서술어: 길다

047 ⑤

048 (가) 굵은 부분의 성분: 바깥 주어
(가) 문장의 짜임: 서술절을 안은 겹문장
(나) 굵은 부분의 성분: 관형어
(나) 문장의 짜임: 홑문장

049 ②

050 (가): 보어
(나): 서술어(서술절)
구별 이유: (가)는 되었다 앞의 보어이고, (나)는 손이—작다의 관계를 가진 절 전체이다.

051 ④

052 인용절 전체: 자신이 열쇠를 찾았다고
바깥 서술어: 말했다
인용 방식(직접·간접 중): 간접 인용

053 ①

054 간접 인용 문장: 민호가 자신이 창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인용절: 자신이 창문을 닫았다고

055 ③

056 (가) 복원한 문장: 아이가 달린다.
(가) 생략된 성분: 아이가
(가) 성분 이름: 주어
(나) 복원한 문장: 수아가 사진을 찍었다.
(나) 생략된 성분: 사진을
(나) 성분 이름: 목적어

057 ⑤

058 복원한 문장: 민호가 마을에 산다.
민호가 마을에서 산다.
생략된 부분: 마을에
마을에서
성분 이름(필수 성분인지까지): 필수 부사어

059 ②

060 관형절의 갈래: 동격 관형절
'사실'과 절 내용의 관계: 상을 받은 것은 동생이며, '동생이 상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다.

061 ③

062 안쪽 관형절: 지수가 고른
명사절 전체: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을

063 ⑤

064 가장 안쪽 관계: 수아가 — (종이배를) 접었다
그다음 관계: 종이배가 — 뜬다
가장 바깥쪽 관계: 나는 — (수아가 접은 종이배가 뜨기를) 바란다

065 ①

066 고친 문장: 내 희망은 작가가 되는 것이다.
고친 이유: 주어 '내 희망은'과 서술어 '되고 싶다'가 어울리지 않는다. 희망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희망은 ~ 것이다'로 맞춘다.

067 ②

068 고친 문장: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에 익숙해졌다.
지키다와 연결되는 성분: 규칙을·목적어
익숙해지다와 연결되는 성분: 그 규칙에·필수 부사어

069 ④

070 고친 문장: 지각의 이유는 버스 고장이다.
줄인 부분: 뒤의 '이유'

071 ⑤

072 전체 부정: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음: 어떤 학생도 도착하지 않았다.
부분 부정: 일부는 도착함: 일부 학생은 도착했지만 모든 학생이 도착한 것은 아니다.

073 ③

074 '파란'이 공만 꾸밈: 나는 장난감과 파란 공을 샀다.
'파란'이 공과 장난감을 모두 꾸밈: 나는 파란 공과 파란 장난감을 샀다.

075 ①

076 바깥 서술어와 자릿수: 주었다·세 자리
바깥 주어: 지우는
바깥 목적어 전체: 언니가 만든 팔찌를
바깥 필수 부사어: 친구에게
안긴절의 범위와 종류: 언니가 만든·관형절

077 ④

078 학생 답에서 틀린 곳 두 가지: 관형절에 '지도'를 포함한 것
생략된 성분을 '지도가(주어)'로 본 것
관형절의 정확한 범위: 민호가 그린
생략된 성분: 지도를·목적어
복원한 문장: 민호가 지도를 그렸다.

079 ②

080 고친 문장: 내 바람은 친구가 회복하는 것이다.
고친 문장의 관형절: 친구가 회복하는
관형절이 꾸미는 말: 것

S6 정답과 해설

선택형의 O/X는 해당 선지 진술의 타당성을 뜻한다. 모든 선택형은 알맞은 설명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001 해설

개념ID: 문법06-01 · 문법06-02 · 문법06-03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어절이 여럿이라고 절이 되지는 않는다.
②	X	'바람이'와 '불면' 사이에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다.
③	O	(가)는 부사구, (나)는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이다.
④	X	둘 다 여러 단어로 이루어졌다.
⑤	X	길이가 아니라 문법적 관계를 본다.

과정 한 줄: 범위 확인 → (가)의 수식 관계 / (나)의 주어·서술어 관계 확인 → 구·절 구별

> **핵심 한 줄:** 구와 절은 결합 관계로 구별한다.

002 해설

개념ID: 문법06-01 · 문법06-02

정답: 절인 것: (나) / 주어: 햇빛이 / 서술어: 비치면

답란 항목	모범 답
절인 것	(나)
주어	햇빛이
서술어	비치면

(가)는 여러 단어가 한 덩어리를 이루지만 주어·서술어 관계는 없다. (나)는 '햇빛이 비치다'의 관계를 가진다.

과정 한 줄: 두 묶음 비교 → 햇빛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 → (나) 선택

> **핵심 한 줄:** 단어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절이 되지 않는다.

003 해설

개념ID: 문법06-01 · 문법06-02 · 문법06-13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안쪽 관형절이 '빵'을 꾸미고, 그 전체가 명사구를 이룬다.
②	X	'빵'은 관형절이 꾸미는 명사이다.
③	X	뒤의 명사 '빵'은 관형절 밖에 있다.
④	X	'언니가'가 주어이다.
⑤	X	명사구 안에 관형절이 들어갈 수 있다.

과정 한 줄: 안쪽 절 표시 → 꾸밈받는 명사 확인 → 더 큰 구의 범위 구별

핵심 한 줄: 안쪽 절과 바깥쪽 구의 범위는 다르다.

004 해설

개념ID: 문법06-02 · 문법06-03

정답: ① 주어 — 서술어: 눈이 — 그치면 / ② 완성한 문장: 눈이 그치면 밖에 나가자. / ③ 구·절·문장 중: 문장

답란 항목	모범 답
① 주어 — 서술어	눈이 — 그치면
② 완성한 문장	눈이 그치면 밖에 나가자.
③ 구·절·문장 중	문장

(가)는 조건을 나타내며 뒤의 말과 연결될 절이다. '눈이 그치면 밖에 나가자.'처럼 완성할 수 있다. (나)는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다. 완성한 문장은 뜻과 문법에 맞으면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주어·서술어 관계 찾기 → 완결 여부 확인 → 조건에 맞게 문장 완성

핵심 한 줄: 절의 존재와 문장 전체의 완결성을 따로 확인한다.

005 해설

개념ID: 문법06-01 · 문법06-02 · 문법06-03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어절 수와 절의 수는 다르다.
②	X	종결하지 않은 절에도 서술어가 있다.
③	X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④	X	길이만으로 단위를 정할 수 없다.
⑤	O	범위·내부 관계·완결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과정 한 줄: 범위 표시 → 내부 관계 확인 → 완결성 확인

핵심 한 줄: 분석을 시작할 때는 범위를 먼저 정한다.

006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5

정답: (가): 주어 / (나): 보어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주어
(나)	보어

‘민지는’은 서술의 주체이다. ‘반장이’는 ‘되었다’ 앞에서 민지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성분 띠

민지는	반장이	되었다
주어	보어	서술어

과정 한 줄: 서술어 되었다 찾기 → 된 주체와 된 대상을 구별

핵심 한 줄: ‘이/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가 되지는 않는다.

007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5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문을 닫은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②	O	닫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③	X	동작을 서술하므로 서술어이다.
④	X	서술어와 주어·서술어 관계를 맺는다.
⑤	X	'닫다'가 요구하는 동작 대상이지 '되다·아니다'의 보어가 아니다.

과정 한 줄: 누가 닫았는가 → 무엇을 닫았는가 → 주어·목적어 확인

> **핵심 한 줄:** 목적어는 타동사의 동작 대상을 나타낸다.

008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5

정답: (가): 주어 / (나): 목적어 / (다): 주어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주어
(나)	목적어
(다)	주어

'우리는'은 먹은 주체이고 '귤도'는 먹은 대상이다. (다)의 '귤이'는 성질이 서술되는 대상, 곧 주어이다. '도'가 붙어도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성분 띠

우리는	귤도	먹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귤이	달다
주어	서술어

과정 한 줄: 서술어 확인 → 주체와 동작 대상 찾기 → 성분 기록

> **핵심 한 줄:** 보조사가 붙어도 문장 안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

009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5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잠자는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②	X	마시는 대상인 목적어이다.
③	X	동네의 상태를 서술하는 서술어이다.
④	O	'아니다' 앞에서 주어 '이것은' 외에 필요한 보어이다.
⑤	X	부르는 말인 독립어이다.

과정 한 줄: 서술어 아니다 확인 → 주어 이것은 제외 → 장난감이의 역할 확인

> **핵심 한 줄:** 보어는 주어 외에 '되다·아니다'의 뜻을 보충한다.

---

010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5

정답: 주어: 하린이는 / 서술어: 챙겼다 / 목적어: 우산을 / 보어: 없음

답란 항목	모범 답
주어	하린이는
서술어	챙겼다
목적어	우산을
보어	없음

챙긴 주체는 하린이, 챙긴 대상은 우산이다. '챙기다'는 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며 보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분 띠

하린이는	우산을	챙겼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과정 한 줄: 챙겼다 찾기 → 누가·무엇을에 답하기 → 보어 유무 확인

> **핵심 한 줄:** 모든 문장에 주성분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011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6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새'는 체언 '공책'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②	X	'또박또박'은 '쓴다'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③	X	뒤의 체언과 수식 관계를 맺는다.
④	X	쓰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⑤	O	관형어의 역할과 꾸미는 대상을 모두 바르게 밝혔다.

과정 한 줄: 꾸미는 말 찾기 → 화살표의 도착점을 공책으로 잡기 → 관형어 판단

> **핵심 한 줄:** 관형어는 뒤의 체언을 꾸민다.

---

012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6

정답: 수빈아: 독립어 / 네: 관형어 / 마당에서: 부사어

답란 항목	모범 답
수빈아	독립어
네	관형어
마당에서	부사어

'수빈아'는 부르는 말이다. '네'는 '동생'을 꾸미며, '마당에서'는 노는 장소를 나타내어 '논다'를 꾸민다.

성분 띠

수빈아,	네	동생이	마당에서	논다
독립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빼도 됨)	서술어

‘네 동생이’ 전체가 주어이고 ‘네’는 그 안의 관형어이다.

과정 한 줄: 부르는 말 확인 → 체언을 꾸미는 말 확인 → 장소를 나타내는 말 확인

> **핵심 한 줄:** 독립어·관형어·부사어는 서로 다른 역할이다.

---

013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6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운동장에서’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다.
②	X	달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③	O	종류와 역할을 구별한 설명이다.
④	X	명사와 조사의 결합 등도 부사어가 된다.
⑤	X	‘운동장’에 조사 ‘에서’가 붙었다.

과정 한 줄: 형태 구성 확인 → 문장에서의 역할 확인 → 품사와 성분 구별

> **핵심 한 줄:** 부사어의 형태는 부사 한 단어로 한정되지 않는다.

---

014 해설

개념ID: 문법06-06

정답: (가): 차다 / (나): 천천히 / (다): 새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차다
(나)	천천히
(다)	새

(가)는 용언, (나)는 다른 부사어, (다)는 관형어 '새'를 꾸민다. 부사어가 언제나 서술어만 꾸미는 것은 아니다.

과정 한 줄: 각 부사어의 의미가 직접 더해지는 말 찾기 → 꾸미는 대상 기록

> **핵심 한 줄:** 부사어는 용언 외의 말도 꾸밀 수 있다.

---

015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6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부르는 말과 동작의 주체를 바르게 구별했다.
②	X	같은 대상을 가리켜도 문장 안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③	X	호격 조사 '아'가 붙은 독립어이다.
④	X	닫은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⑤	X	문장 부호만으로 성분을 정할 수 없다.

과정 한 줄: 부름인지 서술의 주체인지 확인 → 독립어와 주어 구별

> **핵심 한 줄:** 같은 이름도 문장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

016 해설

개념ID: 문법06-07 · 문법06-08

정답: 서술어: 삼았다 / 필수 성분과 종류: 우리는(주어)·민수를(목적어)·대표로(필수 부사어) / 자릿수: 세 자리

답란 항목	모범 답
서술어	삼았다
필수 성분과 종류	우리는(주어)·민수를(목적어)·대표로(필수 부사어)
자릿수	세 자리

삼는 이, 그 대상, 대상에게 부여하는 지위가 필요하다. '대표로'는 필수 부사어이며 보어가 아니다. 서술어 자신은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분 띠

우리는	민수를	대표로	삼았다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

과정 한 줄: 삼았다 찾기 → 누가·누구를·무엇으로 확인 → 세 자리

> **핵심 한 줄:** 자릿수에는 서술어 자신을 넣지 않는다.

---

017 해설

개념ID: 문법06-07 · 문법06-08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부사어 중에는 필수 부사어도 있다.
②	X	'어제'는 시간, '책상에'는 놓는 곳이다.
③	X	시간 정보는 이 뜻의 '놓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④	O	이 문장의 '놓다'는 놓는 이·물건·곳을 요구한다.
⑤	X	'에'가 붙어 장소를 나타내는 필수 부사어이다.

과정 한 줄: 놓다의 뜻 확인 → 놓는 곳과 추가 시간 정보 구별

> **핵심 한 줄:** 부속 성분인 부사어도 필수 성분일 수 있다.

---

018 해설

개념ID: 문법06-07 · 문법06-08

정답: (가) 자릿수: 한 자리 / (가) 필수 성분: 주어 / (나) 자릿수: 두 자리 / (나) 필수 성분: 주어·필수 부사어 / (다) 자릿수: 세 자리 / (다) 필수 성분: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

자료	자릿수	필수 성분
(가)	한 자리	주어
(나)	두 자리	주어·필수 부사어
(다)	세 자리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

'자다'는 자는 주체, '닮다'는 닮는 주체와 비교 대상, '주다'는 주는 이·주는 물건·받는 이를 요구한다.

성분 띠

아기가	잔다
주어	서술어
①	

지우가	언니와	닮았다
주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
①	②	

언니가	지우에게	연필을	주었다
주어	필수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①	②	③	

과정 한 줄: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대상을 질문 → 성분 종류와 수 기록

> **핵심 한 줄:** 목적어 없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도 있다.

---

019 해설

개념ID: 문법06-07 · 문법06-08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필수 성분이 문맥상 생략되었을 뿐이다.
②	O	주는 이·물건·받는 이는 대화 문맥에서 복원된다.
③	X	어절 수와 자릿수는 다르다.
④	X	필수 성분도 문맥상 생략될 수 있다.
⑤	X	서술어 자신은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앞선 질문에서 성분 복원 → 주는 이·물건·받는 이 확인 → 세 자리

> **핵심 한 줄:** 겉으로 나타난 성분 수와 기본 자릿수는 다를 수 있다.

020 해설

개념ID: 문법06-05 · 문법06-07 · 문법06-08

정답: (가) 굵은 부분의 성분: 보어 / (가) 자릿수: 두 자리 / (나) 굵은 부분의 성분: 필수 부사어 / (나) 자릿수: 두 자리

자료	굵은 부분의 성분	자릿수
(가)	보어	두 자리
(나)	필수 부사어	두 자리

(가)는 주어와 보어, (나)는 주어와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 자릿수가 같아도 요구하는 성분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성분 띠

동생은	대표가	되었다
주어	보어	서술어
①	②	

동생은	형과	닮았다
주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
①	②	

과정 한 줄: 필수 성분의 종류 비교 → 주어까지 포함해 수 세기

> **핵심 한 줄:** 자릿수가 같아도 필수 성분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021 해설

개념ID: 문법06-09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나의 뛰는 일과 동생의 걷는 일을 잇는다.
②	X	'꽃이 예쁘다'라는 관형절의 관계가 더 있다.
③	O	할머니께서 차를 드신다는 서술 관계가 한 번이다.
④	X	종이 울리는 조건과 출발하는 일을 잇는다.
⑤	X	내가 종이배를 접었다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과정 한 줄: 각 서술 관계 복원 → 수식어가 많아도 관계가 한 번인 문장 찾기

핵심 한 줄: 문장이 길어도 서술 관계가 한 번이면 홑문장이다.

022 해설

개념ID: 문법06-09

정답: (가) 관계 수: 한 번 / (가) 홑·겹: 홑문장 / (나) 관계 수: 두 번 / (나) 홑·겹: 겹문장 / (나)에 안긴 서술 관계: 도서관이 조용하다

자료	관계 수	홑·겹
(가)	한 번	홑문장
(나)	두 번	겹문장

항목	모범 답
(나)에 안긴 서술 관계	도서관이 조용하다

(가)의 '조용히'는 부사이다. (나)의 '조용한'은 형용사 활용형으로, '도서관이 조용하다'라는 관계를 가진 관형절이다.

과정 한 줄: 조용히와 조용한의 결합 구별 → 안긴 관계 복원 → 홑·겹 판단

핵심 한 줄: 꾸미는 말이라고 모두 같은 구조는 아니다.

023 해설

개념ID: 문법06-09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고'의 모양만으로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
②	X	(나)는 같은 주어가 한 번 생략되었다.
③	X	제시한 분석 기준에서는 '읽고 싶다'를 한 서술어로 센다.
④	X	'읽고'와 '잤다'가 각각 서술 관계를 이룬다.
⑤	O	보조 용언 구성과 두 사건의 연결을 구별했다.

과정 한 줄: 싶다의 보조 용언 쓰임 확인 → 잤다의 별도 사건 확인 → 구조 비교

> **핵심 한 줄:** 어미 모양이 같아도 용언의 결합 방식은 다를 수 있다.

024 해설

개념ID: 문법06-09

정답: 첫째 문장: 나래는 손을 씻었다. / 둘째 문장: 나래는 식탁에 앉았다. / 원래 문장의 짜임: 겹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답란 항목	모범 답
첫째 문장	나래는 손을 씻었다.
둘째 문장	나래는 식탁에 앉았다.
원래 문장의 짜임	겹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두 동작의 주체가 모두 나래이다. 주어가 겉으로 한 번만 있어도 씻는 일과 앉는 일이 각각 서술된다. 손을 먼저 씻고 그다음 앉는 시간적 선후이므로 이 책의 기준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과정 한 줄: 두 동작 구별 → 나래는 복원 → 두 관계 확인 → 시간적 선후의 종속적 연결

> **핵심 한 줄:** 주어를 복원해 관계를 세고, 시간적 선후의 연결은 이 책에서 종속으로 분석한다.

025 해설

개념ID: 문법06-09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하얀’은 ‘눈’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②	X	문장 부호는 안쪽 서술 관계의 수를 알려 주지 않는다.
③	X	‘하얗다’의 활용형이다.
④	X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서술한다.
⑤	X	이 문장은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과정 한 줄: 하얀의 기본형 확인 → 눈이 하얗다 복원 → 안긴 관계 포함

> **핵심 한 줄:** 관형절 속에 생략된 주어도 복원하여 센다.

026 해설

개념ID: 문법06-10

정답: (가) 의미 관계: 나열 / (가) 대등·종속: 대등 / (나) 의미 관계: 원인과 결과 / (나) 대등·종속: 종속 / (다) 의미 관계: 조건 / (다) 대등·종속: 종속

자료	의미 관계	대등·종속
(가)	나열	대등
(나)	원인과 결과	종속
(다)	조건	종속

(가)는 두 활동을 나란히 말한다. (나)는 눈이 쌓인 것이 버스가 늦은 원인이다. (다)는 산책의 조건을 제시한다.

과정 한 줄: 절 사이 의미 확인 → 나열·원인·조건 구별 → 연결 갈래 판단

> **핵심 한 줄:** 연결 갈래는 어미와 의미를 함께 보고 정한다.

027 해설

개념ID: 문법06-10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출발의 조건을 나타낸다.
②	O	작다는 성질과 또렷하다는 성질을 대조한다.
③	X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을 나타낸다.
④	X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을 나타낸다.
⑤	X	예상과 달리 뒤 일이 성립하는 양보 관계이다.

과정 한 줄: 각 연결의 의미 읽기 → 대조 관계 찾기 → 대등 판단

> **핵심 한 줄:**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은 대등한 연결이다.

028 해설

개념ID: 문법06-10

정답: 이어 쓴 문장: 밤새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물이 고였다. / 대등·종속 중 무엇인지: 종속적인 연결

답란 항목	모범 답
이어 쓴 문장	밤새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물이 고였다.
대등·종속 중 무엇인지	종속적인 연결

밤새 내린 비가 운동장에 물이 고인 원인이다. '밤새 비가 내렸으므로 운동장에 물이 고였다.'도 인정한다. 단순 나열만 나타내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원인 찾기 → 원인절을 앞에 두기 → 알맞은 연결 어미로 잇기

> **핵심 한 줄:** 연결 어미를 고를 때 나타낼 의미 관계를 먼저 정한다.

029 해설

개념ID: 문법06-10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같은 어미도 문맥에 따라 다른 관계를 나타낸다.
②	X	제시된 상황은 잠그는 일이 먼저이다.
③	X	두 활동을 단순히 나열한다.
④	O	어미의 형태와 사건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가)를 대등한 연결, (나)를 시간적 선후의 종속적 연결로 분석한다.
⑤	X	의미를 빼고 어미 모양만으로 확정하면 오류가 생긴다.

과정 한 줄: -고 형태 확인 → 두 사건의 순서 유무 확인 → 관계 차이 설명 → (가) 대등, (나) 종속

핵심 한 줄: 나열의 -고는 대등, 시간적 선후의 -고는 이 책에서 종속으로 분석한다.

030 해설

개념ID: 문법06-10

정답: ㉠: X / ㉡: O / 틀린 판단의 기호와 이유: ㉠: 순서 변화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연결 어미와 절 사이 의미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답란 항목	모범 답
㉠	X
㉡	O
틀린 판단의 기호와 이유	㉠: 순서 변화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연결 어미와 절 사이 의미를 함께 보아야 한다.

순서를 바꾸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와 원래 문장에 어떤 의미 관계가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아도/-어도'의 양보 관계는 이 책에서 종속적 연결로 다룬다.

과정 한 줄: 판단 기준 점검 → 양보 관계 확인 → O/X 기록

핵심 한 줄: 순서 바꾸기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판별 기준은 아니다.

031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뒤의 체언을 꾸미지 않는다.
②	X	명사처럼 쓰여 바라는 내용이 된다.
③	X	큰 문장의 서술어는 '바란다'이다.
④	X	다른 발화를 인용하는 구성이 아니다.
⑤	O	명사형 어미 '-기'로 이루어진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과정 한 줄: 안쪽 서술 관계 확인 → -기 확인 → 바라는 대상의 범위 확인

> **핵심 한 줄:** 절의 종류와 큰 문장 속 역할을 함께 읽는다.

032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명사절 자체: 기차가 도착했음 / 큰 문장의 주어 전체: 기차가 도착했음이 / 큰 문장의 서술어: 알려졌다

답란 항목	모범 답
명사절 자체	기차가 도착했음
큰 문장의 주어 전체	기차가 도착했음이
큰 문장의 서술어	알려졌다

'기차가 도착했음'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큰 문장의 주어가 된다. 절의 범위와 성분의 범위가 조사 하나만큼 다르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기차가	**주어(명사절+이)**	주어
도착했음이		서술어: 도착했음 / 이는 절 밖
알려졌다	서술어	해당 없음

과정 한 줄: 명사형 어미까지 묶기 → 조사 이 포함해 주어 묶기

> **핵심 한 줄:** 명사절과 조사까지 포함한 문장 성분의 범위를 구별한다.

---

033 해설

개념ID: 문법06-11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딸기’는 명사 한 단어이다.
②	X	‘기기’는 명사이며 끝 글자만으로 명사절이 되지 않는다.
③	O	‘친구가 돌아오기’에 주어·서술어 관계와 명사형 어미 ‘-기’가 있다.
④	X	‘새’는 관형사이고 안긴절은 없다.
⑤	X	‘저기’의 ‘기’는 명사형 어미가 아니다.

과정 한 줄: 기 글자만 보지 않기 → 돌아오다의 서술 관계 확인 → 명사절 선택

> **핵심 한 줄:** ‘기’라는 글자와 명사형 어미 ‘-기’를 구별한다.

---

034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바꾼 문장: 자료가 정확함이 확인되었다. / 명사절: 자료가 정확함

답란 항목	모범 답
바꾼 문장	자료가 정확함이 확인되었다.
명사절	자료가 정확함

‘정확하다’의 어간 ‘정확하-’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정확함’이 된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자료가 정확함’ 전체를 명사절로 묶는다.

과정 한 줄: 정확하다를 정확함으로 바꾸기 → 주격 조사 이 결합 → 큰 문장 완성

> **핵심 한 줄:** 명사절은 서술 내용을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넣을 수 있게 한다.

---

035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안긴절 내부와 바깥 성분을 구별했다.
②	X	‘민서가’는 안쪽 주어이며 목적어 전체는 더 크다.
③	X	‘민서가’의 건강한 상태를 서술한다.
④	X	안긴절의 주어는 ‘민서가’이다.
⑤	X	안긴절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바깥 성분을 분석한다.

과정 한 줄: 안쪽 주어 확인 → 바깥 바란다의 대상 전체 묶기

> **핵심 한 줄:** 안쪽 주어가 바깥 목적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036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관형절: 지수가 접은 / 꾸밈받는 명사: 종이학 /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지수가 접은 종이학을

답란 항목	모범 답
관형절	지수가 접은
꾸밈받는 명사	종이학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지수가 접은 종이학을

‘지수가 접은’이 ‘종이학’을 꾸민다. 명사 ‘종이학’과 조사 ‘을’은 관형절 밖에 있지만, 목적어 전체에는 포함된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나는	주어	해당 없음
지수가	**목적어**	주어
접은		서술어
종이학을		절 밖: 꾸밈받는 명사+조사
받았다	서술어	해당 없음

과정 한 줄: 꾸밈받는 명사 찾기 → 그 앞의 절 범위 묶기 → 목적어 범위 확장

> **핵심 한 줄:** 관형절의 범위와 목적어 전체의 범위를 구별한다.

---

037 해설

개념ID: 문법06-11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이 뜻의 '새'는 관형사, '긴'은 형용사 '길다'의 활용형이다.
②	O	'긴'에는 '연필이 길다'라는 관계가 있다.
③	X	'길다'는 형용사이고 '긴'으로 활용해 체언을 꾸민다.
④	X	여기서 '새'는 새것이라는 뜻을 더하는 관형사이다.
⑤	X	관형어는 관형사·체언과 조사·관형절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과정 한 줄: 첫말의 형태 확인 → 연필이 길다 복원 → 관형사와 관형절 구별

> **핵심 한 줄:** 관형어라는 역할이 같아도 형태는 다를 수 있다.

---

038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합친 문장: 민호가 메는 가방은 가볍다. / 관형절: 민호가 메는

답란 항목	모범 답
합친 문장	민호가 메는 가방은 가볍다.
관형절	민호가 메는

‘민호가 가방을 멘다’의 목적어 ‘가방을’에 대응하는 명사가 꾸밈받는 자리에 놓인다. ‘민호가 메는’이 그 명사를 꾸민다. 표기는 ‘메는’이며 ‘매는’이 아니다.

과정 한 줄: 겹치는 가방 확인 → 멘다를 메는으로 바꾸기 → 가방 앞에 관형절 놓기

> **핵심 한 줄:** 두 문장의 같은 대상을 관형절로 연결할 수 있다.

---

039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나는’은 바깥 주어이며 이 묶음에는 절의 서술어가 없다.
②	X	꾸밈받는 명사 ‘책’까지 포함했다.
③	X	안쪽 주어 ‘친구가’를 빠뜨리고 명사와 조사를 넣었다.
④	O	주어 ‘친구가’에서 관형사형 ‘추천한’까지가 관형절이다.
⑤	X	바깥 목적어와 서술어를 묶었다.

과정 한 줄: 친구가 추천하다 확인 → 추천한까지 괄호 → 책은 밖에 두기

> **핵심 한 줄:** 꾸밈받는 명사는 관형절 밖에 둔다.

---

040 해설

개념ID: 문법06-09 · 문법06-11

정답: 관형절: 노란 / 관형절에서 복원한 관계: 풍선이 노랗다 / 전체 문장의 짜임: 겹문장(관형절을 안은문장)

답란 항목	모범 답
관형절	노란
관형절에서 복원한 관계	풍선이 노랗다
전체 문장의 짜임	겹문장(관형절을 안은문장)

‘노란’은 형용사 ‘노랗다’의 활용형이다. ‘풍선이 노랗다’와 ‘풍선이 떠올랐다’의 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과정 한 줄: 노란의 기본형 확인 → 풍선이 복원 → 두 서술 관계 확인

> **핵심 한 줄:** 관형절은 한 어절로 나타날 수도 있다.

041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명사 자리에 쓰인 절이 아니다.
②	X	체언을 꾸미는 구성이 아니다.
③	X	'땀이 나다'의 관계가 있다.
④	O	이 책은 '-도록'으로 끝나며 서술어를 꾸미는 이 절을 부사절로 다룬다.
⑤	X	큰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한다.

과정 한 줄: 땀이 나다 확인 → -도록의 수식 기능 확인 → 부사절 판단

> **핵심 한 줄:** 부사절은 안쪽 관계를 지닌 채 부사어 구실을 한다.

042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부사절: 손이 저리도록 / 안쪽 주어: 손이 / 안쪽 서술어: 저리도록

답란 항목	모범 답
부사절	손이 저리도록
안쪽 주어	손이
안쪽 서술어	저리도록

'손이 저리다'라는 관계를 가진 절이 줄을 잡은 정도를 설명한다. '손이'를 빼고 '저리도록'만 적으면 이 문장의 부사절 전체 범위가 아니다.

과정 한 줄: 어느 정도로 잡았는가 묻기 → 손이 저리도록 전체 묶기

> **핵심 한 줄:** 절 범위를 쓸 때 그 안의 주어를 빠뜨리지 않는다.

043 해설

개념ID: 문법06-01 · 문법06-02 · 문법06-11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같은 바깥 기능과 다른 내부 구조를 구별했다.
②	X	둘 다 웃는 모습을 꾸미며 명사처럼 쓰이지 않는다.
③	X	'오래'는 부사이다.
④	X	'배가'는 안쪽 부사절의 주어이다.
⑤	X	역할과 구조는 서로 다른 분석 기준이다.

과정 한 줄: 두 묶음의 바깥 역할 확인 → 안쪽 서술 관계 비교

> **핵심 한 줄:** 바깥 역할이 같아도 구와 절의 구조는 다를 수 있다.

044 해설

개념ID: 문법06-10 · 문법06-11

정답: (가) 문장의 짜임: 부사절을 안은문장 / (가) 판단에 쓴 표현: 목이 쉬도록 / (나) 문장의 짜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나) 판단에 쓴 표현: 비가 와서(원인)

자료	문장의 짜임	판단에 쓴 표현
(가)	부사절을 안은문장	목이 쉬도록
(나)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비가 와서(원인)

(가)의 '-도록' 절은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절로 다룬다. (나)는 원인을 나타내는 앞 절과 결과를 나타내는 뒤 절의 종속적 연결로 다룬다. 제시된 분석 틀에 따라 답한다.

과정 한 줄: 분석 기준 확인 → 꾸밈과 원인 연결 구별 → 문장 짜임 기록

> **핵심 한 줄:** 견해가 갈릴 수 있는 구조는 제시된 분석 기준을 따른다.

045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발자국도'만으로 주어·서술어 관계를 갖춘 명사절이 되지 않는다.
②	X	'없이 고양이가'는 체언을 꾸미는 절이 아니다.
③	O	'발자국도 없이' 안에 '발자국이 없다'라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고, 이 절 전체가 '사라졌다'를 꾸며 사라진 모습을 알려 주므로 부사절이다.
④	X	다른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문장이 아니다.
⑤	X	'고양이가'는 큰 문장의 주어이며 절 전체가 아니다.

과정 한 줄: 바깥 고양이가 사라졌다 확인 → 안쪽 발자국이 없다의 관계 묶기

핵심 한 줄: 큰 문장의 주어와 부사절 속 주어를 구별한다.

046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바깥 주어: 기린은 / 서술절 전체: 목이 길다 / 서술절 안의 주어: 목이 / 서술절 안의 서술어: 길다

답란 항목	모범 답
바깥 주어	기린은
서술절 전체	목이 길다
서술절 안의 주어	목이
서술절 안의 서술어	길다

'목이 길다' 전체가 기린의 특징을 서술한다. 바깥 서술어 구실을 하는 절 전체와 안쪽 서술어 '길다'를 구별한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기린은	주어	해당 없음
목이	**서술어(서술절)**	주어
길다		서술어

과정 한 줄: 큰 대상 기린은 확인 → 설명 전체 묶기 → 안쪽 관계 나누기

> **핵심 한 줄:** 서술절 전체와 그 안의 서술어는 범위가 다르다.

---

047 해설

개념ID: 문법06-05 · 문법06-11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대표가'는 보어이다.
②	X	'학생이'는 보어이다.
③	X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④	X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⑤	O	'다리가 튼튼하다'가 의자의 특징을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과정 한 줄: 보어 구문과 조건 연결 제외 → 안쪽 주어·서술어가 바깥 대상을 설명하는 문장 확인

> **핵심 한 줄:** 체언 뒤 조사 수만으로 서술절을 찾지 않는다.

---

048 해설

개념ID: 문법06-06 · 문법06-09 · 문법06-11

정답: (가) 굵은 부분의 성분: 바깥 주어 / (가) 문장의 짜임: 서술절을 안은 겹문장 / (나) 굵은 부분의 성분: 관형어 / (나) 문장의 짜임: 홑문장

자료	굵은 부분의 성분	문장의 짜임
(가)	바깥 주어	서술절을 안은 겹문장
(나)	관형어	홑문장

(가)는 '눈이 크다'가 서술절이다. (나)는 '고양이의'가 '눈'을 꾸미며 '고양이의 눈이'가 주어를 이루어 서술 관계가 한 번이다.

과정 한 줄: 는과 의의 결합 차이 확인 → 바깥 주어와 관형어 구별 → 관계 수 비교

> **핵심 한 줄:** 같은 대상을 말해도 표현 형태에 따라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

049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서술절 안의 주어이다.
②	O	큰 대상 '이 건물은'의 특징을 서술한다.
③	X	바깥 문장의 주어이다.
④	X	인용격 조사는 없으며 다른 말의 인용도 아니다.
⑤	X	이 문장에서는 '창문이'가 안쪽 주어이다.

과정 한 줄: 바깥 건물의 특징 묻기 → 창문이 많다 전체를 서술절로 묶기

> **핵심 한 줄:** 서술절에는 별도의 절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

050 해설

개념ID: 문법06-05 · 문법06-11

정답: (가): 보어 / (나): 서술어(서술절) / 구별 이유: (가)는 되었다 앞의 보어이고, (나)는 손이—작다의 관계를 가진 절 전체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보어
(나)	서술어(서술절)
구별 이유	(가)는 되었다 앞의 보어이고, (나)는 손이—작다의 관계를 가진 절 전체이다.

‘주장이’ 한 성분과 ‘손이 작다’라는 절은 범위와 구조가 다르다. ‘이’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둘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되다의 보어 확인 → 손이 작다의 안쪽 관계 확인 → 범위 비교

> **핵심 한 줄:** 보어 한 성분과 서술절 전체를 구별한다.

---

051 해설

개념ID: 문법06-11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말한 내용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옮긴 간접 인용이다.
②	X	‘자신’으로 관점을 조정한 간접 인용이다.
③	X	평서 내용을 간접 인용했다.
④	O	원래 말을 따옴표 안에 담아 그대로 옮겼다.
⑤	X	요청 내용을 간접 인용한 표현이다.

과정 한 줄: 원래 표현을 그대로 담았는지 확인 → 따옴표와 라고 확인

> **핵심 한 줄:** 직접 인용은 원래 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

052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인용절 전체: 자신이 열쇠를 찾았다고 / 바깥 서술어: 말했다 / 인용 방식(직접·간접 중): 간접 인용

답란 항목	모범 답
인용절 전체	자신이 열쇠를 찾았다고
바깥 서술어	말했다
인용 방식(직접·간접 중)	간접 인용

이 책에서는 인용한 내용에 ‘고’까지 포함해 적는다. ‘민호가’는 바깥 주어이며, 인용절 안쪽의 ‘자신이’는 민호를 가리킨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민호가	주어	해당 없음
자신이	부사어(인용절 전체)	주어
열쇠를		목적어
찾았다고		서술어: 찾았다 / 인용격 조사 고
말했다	서술어	해당 없음

과정 한 줄: 말했다의 인용 내용 찾기 → 고까지 묶기 → 간접 인용 판단

핵심 한 줄: 인용절의 범위는 책에서 정한 표기 약속에 맞춘다.

---

053 해설

개념ID: 문법06-10 · 문법06-11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가)는 두 절을 잇고, (나)는 말한 내용을 인용한다.
②	X	(가)는 인용이 아니며 (나)는 간접 인용이다.
③	X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으)ㅁ·-기'와 다르다.
④	X	두 기능을 거꾸로 설명했다.
⑤	X	형태 일부가 같아도 결합과 기능을 따져야 한다.

과정 한 줄: 웃고의 연결 확인 → 웃는다고 말했다의 인용 확인 → 기능 구별

핵심 한 줄: '-고'와 인용의 '고'는 기능이 다르다.

---

054 해설

개념ID: 문법06-11

정답: 간접 인용 문장: 민호가 자신이 창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 인용절: 자신이 창문을 닫았다고

답란 항목	모범 답
간접 인용 문장	민호가 자신이 창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인용절	자신이 창문을 닫았다고

원래 발화자 '내가'를 '자신이'로 바꾸고, 창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닫았다고'로 옮긴다. '민호가 자신은 창문을 닫았다고 말했다.'도 같은 뜻이면 인정한다. 인용절 답은 자신이 고친 문장과 일치해야 한다.

과정 한 줄: 발화자 확인 → 자신이로 바꾸기 → 닫았다고로 사실 전달

> **핵심 한 줄:** 인용 방식이 달라져도 말한 내용과 지시 대상은 유지한다.

---

055 해설

개념ID: 문법06-11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원래 뜻을 유지해야 한다.
②	X	직접 인용은 원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③	O	내용의 보존과 관점에 따른 표현 조정을 함께 설명했다.
④	X	절을 잇는 연결 어미 '-고'도 있다.
⑤	X	인칭·시간·장소 표현과 종결 형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과정 한 줄: 전달 관점 확인 → 필요한 표현 조정 → 원래 뜻 보존 확인

> **핵심 한 줄:** 간접 인용은 내용 보존과 표현 조정을 함께 요구한다.

---

056 해설

개념ID: 문법06-12

정답: (가) 복원한 문장: 아이가 달린다. / (가) 생략된 성분: 아이가 / (가) 성분 이름: 주어 / (나) 복원한 문장: 수아가 사진을 찍었다. / (나) 생략된 성분: 사진을 / (나) 성분 이름: 목적어

자료	복원한 문장	생략된 성분	성분 이름
(가)	아이가 달린다.	아이가	주어
(나)	수아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목적어

(가)는 달리는 주체, (나)는 찍은 대상이 관형절 안에서 생략되었다. 밖의 명사에 대응하는 성분을 조사까지 갖추어 복원한다.

과정 한 줄: 밖의 명사 확인 → 안쪽 서술어와 연결 → 조사와 성분 복원

> **핵심 한 줄:** 관형절 속 생략 성분은 꾸밈받는 명사와 연결해 찾는다.

057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2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나)의 '소식'은 고장 난 대상이나 목적어가 아니다.
②	X	'내가 모자를 샀다'이므로 목적어이다.
③	X	고장 난 것은 버스이다.
④	X	둘 다 뒤의 명사를 꾸민다.
⑤	O	뒤 명사와 안쪽 성분의 대응 여부를 바르게 구별했다.

과정 한 줄: 모자를 샀다 복원 → 소식의 내용 확인 → 관계·동격 구별

핵심 한 줄: 뒤 명사가 절 안의 성분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한다.

058 해설

개념ID: 문법06-12

정답: 복원한 문장: 민호가 마을에 산다. / 민호가 마을에서 산다. / 생략된 부분: 마을에 / 마을에서 / 성분 이름(필수 성분인지까지): 필수 부사어

답란 항목	모범 답
복원한 문장	민호가 마을에 산다. / 민호가 마을에서 산다.
생략된 부분	마을에 / 마을에서
성분 이름(필수 성분인지까지)	필수 부사어

'살다'가 거주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거주 장소인 '마을에' 또는 '마을에서'를 복원할 수 있다. 두 문장 중 하나만 쓰면 되며, 생략된 부분은 자신이 복원한 문장과 일치시킨다. '마을을'처럼 목적격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사는의 뜻 확인 → 거주 장소 질문 → 마을에 복원

핵심 한 줄: 관계 관형절에서 부사어가 생략될 수도 있다.

059 해설

개념ID: 문법06-12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빌린 주체는 친구이다.
②	O	친구가 우산을 빌렸으므로 빌린 대상인 목적어이다.
③	X	우산은 빌려 준 상대가 아니다.
④	X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
⑤	X	부르는 표현이 아니다.

과정 한 줄: 친구가 무엇을 빌렸는가 질문 → 우산을 복원

> **핵심 한 줄:** 생략 성분의 조사는 절 안에서 맡는 역할에 맞춘다.

060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2

정답: 관형절의 갈래: 동격 관형절 / '사실'과 절 내용의 관계: 상을 받은 것은 동생이며, '동생이 상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관형절의 갈래	동격 관형절
'사실'과 절 내용의 관계	상을 받은 것은 동생이며, '동생이 상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다.

뒤의 명사를 아무 성분 자리에나 바꾸어 넣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서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명사에 대응하는 성분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과정 한 줄: 상을 받은 주체 동생 확인 → 사실은 절 내용 자체임을 확인 → 동격 판단

> **핵심 한 줄:** 관계 관형절을 찾으려고 원래 의미를 바꾸어 복원하지 않는다.

061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두 절의 종류를 거꾸로 설명했다.
②	X	큰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다.
③	O	'꽃이 피기'는 명사절이고, 이를 포함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은 아이를 꾸미는 관형절이다.
④	X	'아이'는 관형절 밖의 꾸밈받는 명사이다.
⑤	X	'꽃이 피다'의 관계가 있다.

과정 한 줄: 피기의 명사형 확인 → 기다리는의 꾸밈 대상 아이 확인 → 안김 순서 구별

핵심 한 줄: 명사절이 관형절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062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안쪽 관형절: 지수가 고른 / 명사절 전체: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 /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을

답란 항목	모범 답
안쪽 관형절	지수가 고른
명사절 전체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
큰 문장의 목적어 전체	지수가 고른 답이 정확함을

'지수가 고른'은 답을 꾸미고, 그 답이 정확하다는 내용 전체를 확인했다. 명사절 끝의 '-ㅁ' 뒤에 조사 '을'이 붙어 큰 문장의 목적어를 이룬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명사절 안에서	관형절 안에서
우리는	주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수가	**목적어**	**주어**	주어
고른			서술어
답이			절 밖: 꾸밈받는 명사
정확함을		서술어: 정확함 / 을은 절 밖	해당 없음
확인했다	서술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정 한 줄: 고른까지 관형절 묶기 → 정확함까지 명사절 묶기 → 을까지 목적어 묶기

> **핵심 한 줄:** 절을 포함한 더 큰 절과 문장 성분의 범위를 단계별로 넓힌다.

---

063 해설

개념ID: 문법06-09 ·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여러 어절이며 관형절을 안은 겹문장이다.
②	X	명사형 어미로 구성된 절이 아니다.
③	X	‘동생이’는 안쪽 주어이고 큰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다.
④	X	‘동생이 읽은’이 관형절이다.
⑤	O	꾸미는 절과 꾸밈받는 명사, 목적격 조사까지 포함한다.

과정 한 줄: 바깥 빌렸다 찾기 → 무엇을 빌렸는지 전체 묶기

> **핵심 한 줄:** 바깥 성분을 찾을 때 그 안의 수식절을 빠뜨리지 않는다.

064 해설

개념ID: 문법06-09 ·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가장 안쪽 관계: 수아가 — (종이배를) 접었다 / 그다음 관계: 종이배가 — 뜬다 / 가장 바깥쪽 관계: 나는 — (수아가 접은 종이배가 뜨기를) 바란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가장 안쪽 관계	수아가 — (종이배를) 접었다
그다음 관계	종이배가 — 뜬다
가장 바깥쪽 관계	나는 — (수아가 접은 종이배가 뜨기를) 바란다

가장 안쪽 관형절에는 목적어 '종이배를'이 생략되어 있다. 명사절은 종이배가 뜨는 내용을 담고, 큰 문장은 내가 그 내용을 바란다고 서술한다. 마지막 답에서는 바라는 내용 전체를 목적어로 보아야 한다.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명사절 안에서	관형절 안에서
나는	주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수아가	**목적어**	**주어**	주어
접은			서술어
종이배가			절 밖: 꾸밈받는 명사
뜨기를		서술어: 뜨기 / 를은 절 밖	해당 없음
바란다	서술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정 한 줄: 접는 관계 복원 → 뜨는 관계 확인 → 바라는 관계 확인

핵심 한 줄: 서술 관계를 셀 때 생략과 안김의 층위를 함께 본다.

065 해설

개념ID: 문법06-13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층위별 범위와 기능을 따로 읽는 방법이다.
②	X	안쪽의 짧은 절도 절이다.
③	X	바깥 서술어도 큰 문장의 구조를 이룬다.
④	X	관형절 등이 명사절 안에 포함될 수 있다.
⑤	X	명사절 뒤의 격조사는 절 자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과정 한 줄: 범위 표시 → 내부 관계 확인 → 바깥 역할 기록

> **핵심 한 줄:** 범위를 정해야 안쪽 구조와 바깥 기능을 혼동하지 않는다.

066 해설

개념ID: 문법06-14

정답: 고친 문장: 내 희망은 작가가 되는 것이다. / 고친 이유: 주어 '내 희망은'과 서술어 '되고 싶다'가 어울리지 않는다. 희망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희망은 ~것이다'로 맞춘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문장	내 희망은 작가가 되는 것이다.
고친 이유	주어 '내 희망은'과 서술어 '되고 싶다'가 어울리지 않는다. 희망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희망은 ~것이다'로 맞춘다.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문항은 '내 희망은'을 유지하라고 했다. 그 조건에 맞게 희망의 내용을 '…것이다'로 서술한다.

과정 한 줄: 유지할 주어 확인 → 희망의 내용 묻기 → 되는 것이다로 호응

> **핵심 한 줄:** 문장을 고칠 때 발문이 요구한 유지 조건을 지킨다.

067 해설

개념ID: 문법06-14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빵과 주스를 모두 남겼지만 빵까지 '마신 것'으로 묶어 호응이 여전히 어색하다.
②	O	각 대상에 맞는 서술어를 쓰고 두 내용을 모두 유지했다.
③	X	'빵을 마시다'가 여전히 어색하다.
④	X	빵을 먹은 내용이 빠졌다.
⑤	X	주스를 마신 내용이 빠졌다.

과정 한 줄: 먹은 대상과 마신 대상 구별 → 각각 어울리는 서술어 연결

> **핵심 한 줄:** 문장을 고칠 때 원래 전달하려던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068 해설

개념ID: 문법06-08 · 문법06-14

정답: 고친 문장: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에 익숙해졌다. / 지키다와 연결되는 성분: 규칙을·목적어 / 익숙해지다와 연결되는 성분: 그 규칙에·필수 부사어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문장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에 익숙해졌다.
지키다와 연결되는 성분	규칙을·목적어
익숙해지다와 연결되는 성분	그 규칙에·필수 부사어

'규칙을 지키다'와 '규칙에 익숙해지다'는 필요한 조사가 다르다. 뒤 서술어에 맞는 '그 규칙에'를 밝혀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과정 한 줄: 두 서술어의 요구 확인 → 을과 에 구별 → 뒤 성분 보충

> **핵심 한 줄:** 여러 서술어가 같은 대상을 말해도 필요한 조사는 다를 수 있다.

069 해설

개념ID: 문법06-14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부정 표현이 없어 의도한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X	물음으로 바뀌며 의도한 단정이 아니다.
③	X	가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④	O	'결코'와 부정 표현이 호응하여 의도한 뜻을 나타낸다.
⑤	X	포기하겠다는 반대 내용이다.

과정 한 줄: 의도한 부정 확인 → 결코와 호응할 부정 표현 결합

> **핵심 한 줄:** 호응을 고칠 때 문장이 전달할 뜻을 먼저 확인한다.

070 해설

개념ID: 문법06-14

정답: 고친 문장: 지각의 이유는 버스 고장이다. / 줄인 부분: 뒤의 '이유'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문장	지각의 이유는 버스 고장이다.
줄인 부분	뒤의 '이유'

주어에서 이미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서술부에서는 그 내용을 밝히면 된다. '버스 고장 때문에 지각했다.'도 자연스럽지만 발문의 유지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반복된 이유 찾기 → 유지 조건 확인 → 뒤의 중복 줄이기

> **핵심 한 줄:** 중복을 줄이되 문장의 내용과 발문 조건을 유지한다.

071 해설

개념ID: 문법06-15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사진의 소유·보관 관계만 드러낸다.
②	X	사진을 찍은 사람을 뜻한다.
③	X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④	X	받은 출처를 뜻하며 사진 속 인물은 알 수 없다.
⑤	O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할머니임을 드러낸다.

과정 한 줄: 의도한 사진 속 인물 확인 → 나온 사진으로 풀어 쓰기

> **핵심 한 줄:** '의'로 연결된 두 명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072 해설

개념ID: 문법06-15

정답: 전체 부정: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음: 어떤 학생도 도착하지 않았다. / 부분 부정: 일부는 도착함: 일부 학생은 도착했지만 모든 학생이 도착한 것은 아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전체 부정: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음	어떤 학생도 도착하지 않았다.
부분 부정: 일부는 도착함	일부 학생은 도착했지만 모든 학생이 도착한 것은 아니다.

첫째는 도착한 학생이 없다는 뜻이고, 둘째는 도착한 학생과 도착하지 않은 학생이 함께 있다는 뜻이다.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도 첫째 답으로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부정하는 범위 구별 →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각각 풀어 쓰기

> **핵심 한 줄:**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별한다.

073 해설

개념ID: 문법06-15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내가 무서워하는 두 대상을 비교하므로 의도와 다르다.
②	X	무서워하는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어 의도와 다르다.
③	O	나와 동생이 각각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정도를 비교한다.
④	X	무서움을 느끼는 주체가 강아지로 바뀌었다.
⑤	X	내가 두 대상을 똑같이 무서워한다는 뜻이다.

과정 한 줄: 두 주체 나와 동생 확인 → 공통 대상 강아지 확인 → 정도 비교 명시

> **핵심 한 줄:** 비교 표현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드러낸다.

074 해설

개념ID: 문법06-15

정답: '파란'이 공만 꾸밈: 나는 장난감과 파란 공을 샀다. / '파란'이 공과 장난감을 모두 꾸밈: 나는 파란 공과 파란 장난감을 샀다.

답란 항목	모범 답
'파란'이 공만 꾸밈	나는 장난감과 파란 공을 샀다.
'파란'이 공과 장난감을 모두 꾸밈	나는 파란 공과 파란 장난감을 샀다.

첫째 뜻은 '파란'이 공만 꾸미며 장난감의 색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장난감과 파란 공을 샀다.'처럼 어순을 바꾸면 이 뜻이 분명해진다. '나는 파란 공, 그리고 장난감을 샀다.'처럼 쉼표와 말을 넣어 끊은 답도 인정한다. 둘째 뜻은 '파란'을 반복하여 공과 장난감이 모두 파란색임을 밝힌다. 원문에 없는 색 정보를 새로 단정하지 않는다.

방법	어순 바꾸기	쉼표 넣기	꾸밈말 반복하기
고친 예	나는 장난감과 파란 공을 샀다.	나는 파란 공, 그리고 장난감을 샀다.	나는 파란 공과 파란 장난감을 샀다.

과정 한 줄: 파란의 수식 범위 두 가지 확인 → 어순·쉼표·꾸밈말 반복으로 범위 명시

> **핵심 한 줄:** 수식 범위가 모호하면 꾸밈을 받는 대상을 밝혀 쓴다.

075 해설

개념ID: 문법06-15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문법적 성립과 해석의 수는 다른 문제이다.
②	X	중의성만으로 문법 오류라고 할 수 없다.
③	X	문맥을 보충하면 지시 대상과 의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④	X	필요한 정보를 덧붙이거나 순서·수식 범위 등을 조정하면 된다.
⑤	X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으면 맥락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과정 한 줄: 해석 수와 문법적 성립 구별 → 필요한 만큼 표현 조정

> **핵심 한 줄:** 중의성은 곧바로 문법적 오류를 뜻하지 않는다.

076 해설

개념ID: 문법06-04 · 문법06-07 · 문법06-11 · 문법06-13

정답: 바깥 서술어와 자릿수: 주었다·세 자리 / 바깥 주어: 지우는 / 바깥 목적어 전체: 언니가 만든 팔찌를 / 바깥 필수 부사어: 친구에게 / 안긴절의 범위와 종류: 언니가 만든·관형절

답란 항목	모범 답
바깥 서술어와 자릿수	주었다·세 자리
바깥 주어	지우는
바깥 목적어 전체	언니가 만든 팔찌를
바깥 필수 부사어	친구에게
안긴절의 범위와 종류	언니가 만든·관형절

주는 이·물건·받는 이가 각각 한 자리이다. 목적어 안의 ‘언니가 만든’은 팔찌를 꾸민다. 안긴절 내부의 주어 ‘언니가’를 바깥 서술어 ‘주었다’의 추가 자리로 세지 않는다.

성분 띠

지우는	언니가	만든	팔찌를	친구에게	주었다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
①	②			③	

층위표

어절	바깥 문장에서	안긴절 안에서
지우는	주어	해당 없음
언니가	목적어	주어
만든		서술어
팔찌를		절 밖: 꾸밈받는 명사+조사
친구에게	필수 부사어	해당 없음
주었다	서술어	해당 없음

과정 한 줄: 주었다의 세 자리 찾기 → 목적어 안으로 들어가기 → 관형절 확인

핵심 한 줄: 바깥 자릿수를 셀 때 안긴절 내부 성분을 따로 더하지 않는다.

---

077 해설

개념ID: 문법06-09 · 문법06-11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아주 천천히'는 부사구이며 홑문장이다.
②	X	'새'는 관형사이다.
③	X	이 문장의 '장난감이'는 보어이다.
④	O	'친구가 오기'가 명사절이며 '를'과 결합해 목적어가 된다.
⑤	X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이다.

과정 한 줄: 수식어 형태·보어·조건 연결 구별 → 명사절 확인

핵심 한 줄: 홑문장·보어 구문·안은문장·이어진문장을 구별한다.

078 해설

개념ID: 문법06-12 · 문법06-13

정답: 학생 답에서 틀린 곳 두 가지: 관형절에 '지도'를 포함한 것 / 생략된 성분을 '지도가(주어)'로 본 것 / 관형절의 정확한 범위: 민호가 그린 / 생략된 성분: 지도를·목적어 / 복원한 문장: 민호가 지도를 그렸다.

답란 항목	모범 답
학생 답에서 틀린 곳 두 가지	관형절에 '지도'를 포함한 것 / 생략된 성분을 '지도가(주어)'로 본 것
관형절의 정확한 범위	민호가 그린
생략된 성분	지도를·목적어
복원한 문장	민호가 지도를 그렸다.

'지도'는 꾸밈받는 명사이므로 관형절 밖에 놓인다. 그린 주체는 민호이고 그린 대상이 지도이므로 '지도를'이라는 목적어를 복원한다.

과정 한 줄: 꾸밈받는 지도 제외 → 그린 대상 복원 → 목적어 확인

> **핵심 한 줄:** 범위 오류와 생략 성분 오류를 따로 고친다.

079 해설

개념ID: 문법06-14 · 문법06-15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가)는 호응이 어색하고, (나)는 문맥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표현이다.
②	O	호응의 어색함과 의미 관계의 여러 가능성을 구별했다.
③	X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이 아니다.
④	X	지수가 그린·소유한·그림 속에 등장한 관계 등이 가능하다.
⑤	X	'좀처럼'과 호응하도록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처럼 부정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과정 한 줄: 좀처럼과 서술어의 호응 확인 → 지수와 그림의 관계 해석 → 문제 종류 구별

> **핵심 한 줄:** 문법적 호응의 어색함과 여러 해석 가능성을 구별한다.

080 해설

개념ID: 문법06-11 · 문법06-13 · 문법06-14

정답: 고친 문장: 내 바람은 친구가 회복하는 것이다. / 고친 문장의 관형절: 친구가 회복하는 / 관형절이 꾸미는 말: 것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문장	내 바람은 친구가 회복하는 것이다.
고친 문장의 관형절	친구가 회복하는
관형절이 꾸미는 말	것

‘내 바람은’의 내용을 ‘…것이다’로 밝혀 호응을 맞춘다. 고친 문장에서는 ‘친구가 회복하는’이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원문의 명사절 ‘친구가 회복하기’와 고친 문장의 관형절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번 문항은 ‘…것이다’라는 고침 형식을 지정했으므로 그 조건도 지킨다.

과정 한 줄: 바람은과 호응하도록 수정 → 수정 뒤의 구조를 다시 읽기 → 관형절과 꾸밈받는 말 구별

> **핵심 한 줄:** 문장을 고친 뒤에는 바뀐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한다.

S7 개념–문항 연결표

개념ID	개념	연결 문항
문법06-01	구	001·002·003·005·043
문법06-02	절	001·002·003·004·005·043
문법06-03	문장	001·004·005
문법06-04	문장 성분	006·007·008·009·010·011·012·013·015·076
문법06-05	주어·목적어·보어	006·007·008·009·010·020·047·050
문법06-06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011·012·013·014·015·048
문법06-07	서술어의 자릿수	016·017·018·019·020·076
문법06-08	필수 부사어	016·017·018·019·020·068
문법06-09	홑문장·겹문장	021·022·023·024·025·040·048·063·064·077
문법06-10	이어진문장	026·027·028·029·030·044·053
문법06-11	안은문장·안긴절	031·032·033·034·035·036·037·038·039·040·041·042·043·044·045·046·047·048·049·050·051·052·053·054·055·057·060·061·062·063·064·076·077·080
문법06-12	관형절 속 성분의 생략	056·057·058·059·060·078
문법06-13	절의 범위 읽기	003·031·032·034·035·036·038·039·041·042·045·046·049·052·061·062·063·064·065·076·078·080
문법06-14	정확한 문장	066·067·068·069·070·079·080
문법06-15	중의성	071·072·073·074·075·079

다음 단원으로: 문장 안의 역할과 구조를 바탕으로 높임·시간·피동·사동·인용·부정 등의 문법 표현을 살펴본다.